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그리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7월 29일)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상월결사는 9월 5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입재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입재식에서 참가 대중이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제창하는 모습.

400여 대중, '대학생 전법' 방안 찾기 나섰다

상월결사, 9월 5~6일 대학생전법위 워크숍 개최

교구 전법위원 등 400명 결집
진우 스님 "전법 등불 밝히길"
천태종 등 종단협 종단 동참해
권역별 그룹이 전법 방안 논의
MZ세대 이해 소통 위한 강의도
자승스님 "나부터 탁발로 전법"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미래불교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부처님 법을 전할 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00여 사부대중은 한 곳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대학생 전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9월 5~6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앞서 입재식이 봉행됐다. 입재식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각 부문별 전법위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부회장 종단의 스님과 정사들이 전법위원으로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워크숍은 상월결사가 지난 7월 6일 대학생 전법 전문 조직인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구성하며 비롯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지난해 12월 18일 (사)상월결사 창립총회에서 대학생 전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전문 조직 구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관련 현황과 전법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상월결사는 조계종 포교원과 학교법인 동국대와 대학생 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에서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5명, 전법위원 22명을 위촉해 전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올해 5월 이후부터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을 위한 TFT 회의와 교구장 간담회, 종정예하 · 총무원장 스님 보고 등을 거쳐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로 대학생 전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의 대학생들은 부처님 여섯 번째 제자인 '야사의 후예'들이며, 전법의 주역으로 성장할 새싹들"이라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은 '야사의 후예'를 양성하는 방안과 전법의 주역을 육성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나누는 자리다. 오늘의 진력과 헌신이 대학생 불자들에게 활력이 되어 미래불교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생 전법 워크숍이 청년대학생 포교의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은 의무나 책임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셨다"면서 "대학생 전법은 미래불교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시작해 원력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워크숍에서는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의 '대학생 전법의 의미와 방향' 기조 발표와 △MBTI를 활용한 대학생의 이해와 공감(최민주 강사) △MZ세대의 이해와 접근(허태균 고려대 교수) 특강이 진행됐으며, 대학생 전법 우수 사례 발표(홍대선원 · 신구대 불교동아리 ·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이뤄졌다.

또한 전법위원들은 지역별로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학생은 무엇을 원하는가'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2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법위원들은 △생활과 접목 가능한 불교 콘텐츠 △체계적인 동아리 운영지원 방안 △대학생과 함께하는 대중공사 정례화 △핵심 인재 발굴 · 육성 전략 △홍보 · 마케팅 전략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월 6일에는 권역별 · 교구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서 전법위원들은 대학생 전법을 이끌 핵심 인력인 '키맨(Key-Man)'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향에 앞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자신이 직접 탁발하며 지원하겠다는 서원을 내보였다.

자승 스님은 앞으로 교구본사가 대학생 전법기금 1억 원을 조성해 지역 3곳 대학의 전법을 책임져 줄 것을 제안하며 "5~6년동안 제가 직접 탁발하면서 전법 기금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원력을 공표해 눈길을 끌었다.

자승 스님은 총평 이후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 개최에 많은 노력을 한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과 김용현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에게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 휘호를 전달했다. 이후 상월결사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제창을 끝으로 워크숍을 회향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10월 28일 의성 고운사에서 '평화 방생 순례'를 개최한다.

〈관련 특집 2 · 3면〉

젊은 비구니스님 위한 '나란다수행관' 제3관 불자 보시로 개관해

조원희 불자, 소유 부동산 무상임대
수행관 더불어 지역 포교 허브 역할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머무는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처 '나란다수행관'이 최근 3관을 마련하며 젊은 스님들의 원력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은 9월 7일 "서울 금호동에 나란다수행관 제3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자우 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2018년 2월 처음 문을 연 나란다수행관은 그동안 젊은 비구니스님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로 평가돼왔다. 대학원 공부, 사찰음식 수업, 장애인 포교 등을 위해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비구니스님들이 변변한 거처가 없어 여관이나 고시원 등에서 지낸다는 고충을 듣고 시작한 불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개관한 3관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조원희 불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며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조원희 불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두 달간 직접 수행관 인테리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우 스님은 "방사가 부족해 스님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조원희 불자의 발심 덕분에 나란다수행관은 총 9개 방사를 갖추게 됐다"며 "더 많은 비구니스님들이 홍제동과 금호동에 지내면서 포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개관한 나란다수행관은 여러 스님들의 보금자리가 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불자들의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해 5년여 동안 총 30명의 스님들이 나란다수행관을 다녀갔다. 농인법회 '자비두손회'를 이끌고 있는 일원 스님,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범준 스님, 사찰음식을 전문화하고 발전시키는 성화 스님, 영어경전 번역과 동시통역 활동을 하는 민우 스님도 나란다수행관을 이용했다. 나란다수행관이 단순한 숙박이 아닌 도심 포교의 허브 역할을 하는 셈이다.

동국대 박사과정을 마친 선우 스님은 "나란다수행관이 없었다면 공부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자우 스님은 "도심포교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요즘, 포교 현장인 도심에 스님들이 머물러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나란다수행관이 더 여법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란다수행관 입방과 보시에 대한 문의는 비로자나국제선원으로 하면 된다. (02)6012-1731

윤호섭 기자



호산 스님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후보) 7면

2024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있는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7(2023)년 7월 2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 명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규정)」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지정요건) ①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예산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선정 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23년 9월	2023년 10월	2023년 10월	2023년 11월	2024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지원 없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0일(목) ~ 9월 22일(금)
- 신청자격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 신청서류
  1) 2024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2)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 신청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1)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제출 : jiuk@templestay.com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운규(02-2031-2030)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통지

※신청기한 경과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

대학생 전법, '학생 · 교수 · 법사' 핵심 인력 양성부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워크숍
권역 그룹 토론 결과 살펴보니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1박 2일 동안 400여 출 · 재가 대중이 대학생 전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댔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9월 5~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출 · 재가 전법위원들은 지역별로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학생은 무엇을 원하는가'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2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법위원들은 △생활과 접목 가능한 불교 콘텐츠 △체계적인 동아리 운영지원 방안 △대학생과 함께하는 대중공사 정례화 △핵심 인재 발굴 · 육성 전략 △홍보 · 마케팅 전략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월 6일 오후에는 권역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개 권역 전법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생 전법을 이끌 핵심 인력인 '키맨(Key-Man)'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 경기 그룹 전법위원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법 기반 마련을 위해 종법 입법을 통해 지도법사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1인 위주의 지도법사 체제를 2~3인 체제로 구성해 공백을 최소하고 임기를 4년 내외로 보장해 학생과의 신뢰 ·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니중앙종회의원, 군종, 셀럽 스님까지 아우른 강원 · 제주 그룹은 전국 대학 불교학생회 회장단 임원 연수를 통해 집중 교육하고 상호 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핵심 인재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문 자격증 개발로 분야별 인재를 키우고,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불교 정서 프로그램 개발 · 지원을 강조했다.

부산 · 경남 그룹 전법위원은 "지도법사, 지도교수, 회장단의 체계적 양성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동아리 회장단 정기연수 △사찰 불자 자녀 활용해 학생 키맨 발굴 △지역 대학 우수 불교 동아리 사례 홍보 및 지도교수 유입 등을 제안했다.

대구 · 경북 그룹은 △불자교수 인프라 확보 △불교 동아리 회장 지원 강화 △지도법사 지원 강화를 전법 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구 · 경북 전법위원들은 "지역 대학 불자교수를 조사 · 관리하고 이들이 지도교수로 동아리를 창립 · 운영토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또한 학생 간 유대를 이끌 회장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일선 사찰들은 무료 템플스테이, 장학제도 등을 통해 지도법사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그룹도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하고 포교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을 지원했다. 또한 안정적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졸업 후에도 후배를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9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 권역별, 교구별 전법 계획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전법위원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메모를 하고 있다.

전법 이끌 '키맨' 발굴 공감대
새로운 전법 방식 개발 필요
지속적 재원으로 장학 지원을
비구니 전법위원 확대 제안도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이 워크숍 참여 소회를 밝히고 있다.

권역마다 톡톡 튀는 전법 아이디어들도 쏟아졌다. 서울 · 경기 그룹은 종단 간 협력(One Team)을 통한 공통된 전략(One Skill)을 세워 전법과 기본에 충실한 포교를 강조했다. 대구 · 경북 그룹은 1스님-1대학생 매칭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불교 포교를 위한 키맨을 육성하고 사찰별 연등기도금 중 1~3%를 청년불자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공모전을 통한 전법도 공통된 방안이었다. 부산 · 경남 그룹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엠블럼, 캐릭터 제작 관련 대학생 공모전을 제안했다.

강원 · 제주 그룹은 대학생에 특화된 공모전 및 축제와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 통합 동아리 공간 신설 및 활동 등을 홍보 · 마케팅 전략으로 내놨다. 호남 그룹은 웹툰 등을 통한 마케팅과 이것이 없을 경우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워크숍에서는 '1본사-1대학' 지원을 전법 기조로 내세운 교구본사별 전법 계획 발표도 이어졌다. 대부분의 교구들이 1개 대학 지원을 기본으로 최대 4개 대학의 동아리 건립 지원을 천명했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강원대와 한림대를 중점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 법회 정례화, 연합 행사 및 강원 파라미타 연계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기존 대학의 불교학생회에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동아리 창립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 전법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전법 예산을 3000만원 책정해 불자교수 발굴과 강원대 강릉 · 원주 · 삼척캠퍼스 불교 동아리 설립을 추진하며 제5교구본사 법주사는 충북대, 청주교대 등 4개 대학에 불교학생회를 설립키로 했다. 제6교구 마곡사는 공주대 불자교수회 창립을 시작으로 단국대 천안캠퍼스, 세종 한국영상대, 아산 순천향대에 불교학생회를 올해 중으로 창립할 계획이다.

제9교구 동화사는 대구 권역 대학교 전법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전법을 추진할지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15교구 통도사는 영산대 불교학생회를 창립하며 지역 대학생들에게 무료 템플스테이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는 3000만원의 전법 예산을 마련하고 전주대, 전주교대, 원광대에 불교 동아리를 창립하며, 제18교구 백양사는 광주여대와 동신대에 불교 동아리 창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제25교구 봉선사는 신임주지 후보로 선출된 호산 스님을 중심으로 청년 등 계층법회 활성화, 광릉수목원 천년의 숲 걷기 명상, 대학생 대상 템플스테이 무료 개방(월1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구니중앙종회의원들이 참여한 비구니전법위원들의 계획도 발표됐다. 대표해 계획을 발표한 정운 스님은 "9월 18일 새로운 전국비구니회장 스님을 선출하고 집행부가 새로 꾸려진다. 현재 전국비구니회에는 19개의 지회가 있다. 이 조직을 활용한다면 대학생 전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법위원 내 비구니 위원이 현저히 적다. 지회장과 논의해 새로운 비구니 전법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비구니 위원이 확대 · 구성된다면 각자의 지회에서 대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학생 전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토론회 말 말 말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고,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등 불교권 국가 유학생들이다.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서 지원에 신경을 쓰는데, 종단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안하면 재정 지원부터 불교 포교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 해동 스님(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 지도법사)

"지난 3월 포교원과 대학생 전법단과 함께 홍대선원에서 불교 동아리 회장 3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했고, 많은 호응이 있었다. 당시 서울대 불교학생회장은 휴학계를 내고 홍대선원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고, 경북대 불교학생회장도 전법 발심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정된 재원을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회장, 회장단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준한 스님('저스트 비' 홍대선원 주지)

"MZ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이었다. 따뜻하게 바라봐주며 어깨 한번 토닥여주는 것으로 힘을 얻어 그들은 살아가더라. 너무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스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기본적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 혜원 스님(조계사 템플스테이 국장)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내에 통합 불교 동아리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법우, 대학간 정보를 나누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한다.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 밀엄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성정이 투박해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은 스님들을 거부감을 가진 상태로 대한다,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위급하다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스님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
– 보선 스님(수원사)

"대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강하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교리 강의보다는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등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해달라."
– 유정현(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자승 스님의 간절한 원력…“탁발로 전법 지원하겠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워크숍 총평서 공표

“본사서 전법 예산 1억 조성해서
3곳 대학 캠퍼스 전법 책임지면
상월결사서 1곳 추가 전법 연계”
모든 역량 동원 전법 지원 약속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1박 2일 워크숍으로 제가 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5~6년동안 제가 탁발해 대학생 전법기금을 모으겠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자신이 직접 탁발하며 지원하겠다는 서원을 내보였다. 이는 스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간절한 약속이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9월 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 총평에서 대학생 전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20년 전 본사 조실 스님과 총림 방장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인사할 당시 어른스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공심, 신심, 원력, 그리고 화합이었다”고 술회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부대중은 원력과 신심, 공심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1박 2일 워크숍의 권역별 토론이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다. 이는 상월결사의 스태프들이 잘 정리해서 포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할 일 분명히 알았다”고 밝힌 자승 스님은 앞으로 교구본사가 대학생 전법 기금 1억 원을 조성해 지역 3곳 대학의 전법을 책임져 줄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상의해 본사 1곳에서 1억원의 전법 기금을 마련해 3곳의 지역 대학 캠퍼스 전법을 지원토록 하려 한다”면서 “이것이 이뤄지면 지역의 4개 대학부터는 상월결사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위해 5~6년동안 제가 직접 탁발하면서 전법 기금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원력을 공표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





자승 스님이 워크숍 개최에 공로가 큰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사진 왼쪽)과 김용현 동국대 사회대학장(사진 오른쪽)에게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휘호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진흥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역량을 집중할 것도 약속했다. 스님은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 불자회 회장, 국회 정각회 회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등을 모시고 전법 관련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한국불교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함께 전법, 포교로 넘어서자”고 강조했다.

대학생 전법에 나선 스님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예산을 조성하고 지도법사를 발굴해 열심히 활동을 시작해도 강한 원력이 없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하며 “대학생 전법에 나선 스님들은 철처한 지계로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허물도 보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총평 이후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 개최에 많은 노력을 한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과 김용현 동국대 사회대학장에게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휘호를 전달했다.

지원·관심은 기본…“스위트한 스님 되세요”

잘 되는 불교 동아리 비결은

9월 5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는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합시다’를 주제로 △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 △경북대 불교학생회 ‘경불회’ △글로벌 수행 놀이터 홍대선원 등의 대학생 전법 성공사례를 공유됐다.

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은 지도법사 해동 스님이 중흥을 이끌었다. 1973년 신구대 개교와 동시에 창립된 불교동아리는 부원 감소 등 침체로 2000년대 이후 사진영상미디어학과 과동아리로 축소됐다. 하지만 현 지도법사 해동 스님이 나서서 과동아리 형태인 불교동아리를 중앙 동아리로 승격시켰고 올해까지 212명의 부원이 활동하는 거대 동아리가 됐다.

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의 인기 몰이 비결은 지원이다. 처음 홍보부터 ‘신입부원은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을 내걸었고,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노쇼가 심해 이제는 1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이를 동아리 운영비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완성시켰다.


해동 스님


김용진 교수


주현우 회장


준한 스님 (발표 순)

법회 단일 행사로 행사를 기획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해동 스님은 “신입생 환영법회와 봉축법회를 함께 봉행하고, 항상 뒤풀이 술자리가 있는 법회를 진행한다”면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는 방생법회를 했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는 지도교수인 김용진 사범대 생물교육과 교수가 재창립을 이끈 케이스다. 1976년 창립된 ‘연화’는 15년 전부터 활동이 감소돼 2016년 폐부됐다. 이후 진주 약사정사 주지 진여 스님은 학생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했고,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불교동아리 창립을 제안해 재창립이 추진됐다. 결국, 신실한 신심을 가진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의기투합이 소멸됐던 학내 전법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김용진 지도교수는 “불교 동아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창립에 기여할 ‘핵심 교수’와 학생들을 섭외해야 한다”면서 “인근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를 발전시켜 주변 대학 창립을 지원토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 불교학생회, ‘경불회’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우수 지회로 선정될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다. 1960년 설립된 경불회는 특히 동문들의 지원이 활동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문 후원으로 이뤄지는 ‘선진지 답사’가 입소문이 나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는 후문이다. 주현우 경불회 회장은 “주1회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와 사찰 탐방, 불교박람회 관람, 붓다 콘서트, 독서·108배소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수행 놀이터’를 표방하는 저스트 비(Just Be) 홍대선원은 핫플레이스 도심 청년 수행처로 급부상하는 도량이다.

이날 주지 준한 스님은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청년 포교를 위한 승가상을 제시했다. 바로 ‘스위트한 스님’이다. 준한 스님은 “사미·사미니 스님들이 중앙승가대에서 4급 승가고시를 보고자 상경해 홍대선원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포교 방안을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스위트한 스님이 되세요’였다”면서 “불교가 위기라고 하지만, 청년들도 정말 위기다. 이들을 편안하고 따듯하게 보듬을 수 있는 ‘스위트한 스님’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불교, 대학생 아지트·플랫폼 되자”

이상훈 회장, 워크숍 기조발표서 강조

琪 불교방식 고집 말고 변화
‘말할테니 들어라’ 설법 금물



“대학생들을 전법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교 전법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반드시 경전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는 대학생들의 아지트나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미래세대에 맞는 미래불교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대전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사진)은 9월 5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 ‘대학생 전법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동아리방을 찾는다고 불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학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불교가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상훈 회장은 발표 내내 “전통적 종교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세대에게 현재까지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미래세대로 다가가 미래불교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이상훈 회장은 ‘대학생 전법에 주의할 점’ 등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이것 밖에 안 왔어’라는 말하는 스님이 계신다. 자존감을 중시하는 현재 대학생들은 자신을 숫자로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나는 말할테니 너는 들어라’식의 꼰대 설법은 노이즈 캔슬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템플스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황금법당 수국사 템플스테이



스님과 함께 정진하는 참선 템플스테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가 한번쯤은 스스로 질문을 해 보셨을 질문들…
이번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참선을 통해 답을 찾아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황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일정 (사찰의 사정상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일정명
10:30	10:40	수련복 지급
10:40	11:10	마음수행시간
11:10	12:00	좌선 및 이완명상
12:00	13:00	점심공양 및 자유 휴식시간
13:00	14:00	도량안내
14:00	15:00	차담 및 음악감상
15:00	15:30	회향

휴식형 템플스테이 1박2일

프로그램 일정 (사찰의 사정상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일차

시작시간	종료시간	일정명
14:00	14:00	입소 및 수련복지급(다원)
14:10	15:10	사찰 예절 및 도량 안내
15:10	16:50	자유 휴식시간
17:00	17:50	저녁공양(후원)
18:00	18:20	저녁예불(탕글법당)
18:20	21:00	기유 휴식시간
21:00	00:00	취침시간

• 2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일정명
00:00	00:00	* 프로그램은 사찰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4:30	04:30	기상시간(자울)
05:00	05:20	새벽예불(황금법당)
05:30	07:30	아침공양(후원)
07:30	10:30	자유 휴식시간
11:00	11:50	방사 정리 및 수련복 반납(다원)
12:00	12:02	점심공양 및 퇴소(자율)

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이메일: suguksa@naver.com ☎ (02)356-2001 Fax (02)359-6297

청년 발심 출가…대자유 길로 나아가다


삭발 아사리 남일 스님이 최원호 씨의 삭발을 돕고 있다.

최원호 대불청 前조직팀장
5일 출가…연화사서 삭발
"많은 이에게 도움 되고파"
묘장 스님 "세심하게 지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오늘 삭발하려는 그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교단을 지키는 승단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출가하기 위해 절을 찾아온 이에게 삭발 아사리인 남일 스님이 '삼보호지'의 물음을 던졌다.

"예."

합장한 채 무릎 꿇고 앉은 우바새의 나지막한 대답.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삼배 먼저 올리고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된 출가자 감소로 인해 출가 첫 삭발의식을 보기 드문 요즘, 9월 5일 서울 동대문구 연화사에서 입산자의 삭발의식이 치러졌다. 삭발의 주인공은 며칠 전까지 대한불교청년회 조직팀장으로 근무한 최원호(34) 씨. 불과 이틀 전에는 조계사 하안거 회향맞이 방생법회를 따라 담양 용흥사까지 다녀온 청년불자다. 성인이 된 이후 줄곧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일한 그가 '위대한 포기'를 결심한 것. 삭발의식을 앞두고 최 씨에게 출가동기를 물었다.

"어려서부터 출가 권유는 많이 받았지만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절에서 일하거나 봉사를 하면서 불자님들을 맞이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뭔가 주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얼마 전 최 씨가 가족에게 출가의사를 밝히자 부모님은 "마음 가는대로 하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불자인 부모님도 아들이 언젠가는 출가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은연중 품고 있었을 터. 최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인연이 된 김천 송학사 주호 스님에게 출가상담을 요청했고, 비구니인 주호 스님은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을 찾아가보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최 씨는 묘장 스님을 만나 출가상담을 받고 3일이 지나 출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씨는 "죽음을 초월한 스님들을 보고 고1 때부터 출가를 결심했다는 묘장 스님 말씀에 큰 울림을 받았다"며 "저도 불교단체에서 일하면서 큰스님들을 찾아뵙고 법문을 들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진언과 함께 시작된 삭발의식. 삭발 아사리 남일 스님의 가위질에 기다란 무명초(無明草)들이 좌복 위로 떨어져 내렸다.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태어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을 삭발에 최 씨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다.

20분에 걸쳐 이발기와 면도기로 깨끗하게 삭발을 마친 최 씨는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며 세속을 떠나 출가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남일 스님은 행자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최 씨에게 바지 아래 행건을 채워주며 "고맙고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남일 스님은 이어 사문에 들어선 최 씨에게 행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설했다. 스님은 "행자님은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세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출가는 또 한 번의 기회다.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보겠다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스승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써야 한다"면서 "고통 받는 중생을 어떻게, 어떤 지혜로 제도하고 아픔을 위로할 것인지 수행을 통해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법을 마친 남일 스님은 "승단에 고귀한 인연이 찾아와 축복해야 하는 날"이라며 "은사는 아니지만 삭발 아사리의 연을 잊으면 안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최 씨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힘이 들어도 꿋꿋하게 이겨내서 행자생활을 잘 마치고 사미계를 받아 스님이 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최 씨의 은사인 묘장 스님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정 때문에 삭발식에 함께하지 못했다. 묘장 스님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자가 자신만의 원력을 잘 세워서 수행으로 성취하길 바란다"며 "불교와 종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님이 되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수덕사·송광사 성보 디지털로 만난다

불교학술원, 9월 6일 수덕사·송광사 업무협약

경허·만공 법어집 아카이브
송광사 경판·전적 디지털화

덕숭총림 수덕사와 조계총림 송광사가 소장 성보 문화재가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이 추진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학술 연구뿐 아니라 대외 홍보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불교학술원은 9월 6일 불교학원장실에서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와 '경허·만공 법어집 증보 간행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경허 스님과 그 맥을 이은 만공 스님의 말씀이 담긴 법어집을 증보판으로 간행하는 한편 디지털화 통해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허·만공 법어집 증보판 간행 △경허·만공 관련 제반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사업 관련 상호 협의 등이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이번 간행을 계기로 경허·만공 스님의 말씀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대했다. 스님은 "경허 스님 법어 정본 간행과 만공 스님 어록 증보는 이들 선양의 첫 시작"이라면서 "철저한 고증 후 현대적으로 해석, 완벽해진 경허·만공 스님의 말씀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묵 스님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불교학술원이 힘이 돼 기쁘다"면서 "법어집의 정본과 증본 간행이 내년까지 마무리 되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증보판 간행부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까지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총괄한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문 학자들에게는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경허·만공 스님의 육성이 담긴 법문 통해 수행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균형잡힌 법문집을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면서 "산중 어른들의 말씀이 확장성을 갖게되는 작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수덕사, 송광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은 수덕사와의 협약식이며, 사진 오른쪽은 송광사와 협약식.

불교학술원은 같은날 송광사(주지 자공)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송광사 성보 유산과 불교문화 콘텐츠를 첨단 디지털 기술로 가공, 문화유산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송광사서 촬영한 소장 경판 및 소장 전적의 디지털사업 △촬영한 경판과 전적을 활용한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 및 대국민 서비스 지원 △디지털 사업 관련 상호 협의 등이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송광사 화엄경 경판은 해인사 다음으로 양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송광사의 성보들이 디지털 작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공 스님에 따르면 송광사는 과거 삼성재단이 지원으로 보유 탱화를 3D로 구현한 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기업의 사회적 환원으로 인한 좋은 결과물들로 불교학술원의 디지털 사업도 동력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생성될 결과물들은 불교학술원이 소장한 아카이브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진우 스님 초청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9월 4일 조계종 예방

10월 열리는 종교회의 소개
진우 스님 "불교 어우러지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있다.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신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9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내달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 실무집행회의에 공식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종 대표단을 참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찬란한 불교문화가 카자흐스탄 문화와 어우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 실무집행회의'는 10월 10~1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 2022년 제7차 대회가 개최됐으며 불교를 포함해 가톨릭, 이슬람, 성공회, 정토회, 유대교, 힌두교 등 세계 각국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해왔다. 한국 종교계에서 조계종이 유일한 초청 대상이다.

아르스타노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은 불교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치며 남긴 불교벽화 등을 보유한 불교와 매우 관계가 깊은 나라"라면서 "130개 이상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10만여 고려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아르스타노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의 일원이 돼 자리를 잡은 고려인들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신문이 발간되고 한국어 극장까지 있다고 들었다"면서 "고려인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임은호 기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12월 6일 출발~10일 도착(3박5일간)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년전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불탑입니다.
1460개에 달하는 벽면에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등 생애에 관한 장면들이
그리고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이 조성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화엄법계를구현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조성한 세계 최고의 불탑입니다.

동참금 | 169만원
일 정 | ▶1일 :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자카르타
▶2일 : 자카르타–족자카르타–프람바난사원,세우사원,플라오산 불교사원등 순례
▶3일 : 보로부두르 대탑, 멘듯사원등 순례
▶4일 : 머라피 화산 지프로 관광 후 족자카르타 출발, 자카르타 도착(경유)
▶5일 : 인천 공항 도착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023년 11월 29일~12월 6일

동참금 | 259만원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우는 스리랑카는 섬 전체가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령 2,500여년 된
보리수와 부처님 치아사리, 그리고 바위산 위에
있는 궁전 시기리야, 담불라 황금석굴사원,
폴론나루와의 불상과 유적들,
유럽풍의 휴양도시 갈레 등 아름다운 곳입니다.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출발일정

동참금 | 270만원~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
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1차) 11월 02일 출발~11월 12일 도착(11일 일정)
▶2차) 11월 18일 출발~11월 28일 도착(11일 일정)
▶3차) 12월 26일 출발~01월 04일 도착(10일 일정)
▶4차) 01월 13일 출발~01월 23일 도착(11일 일정)

아잔타 석굴 포함 인도성지순례 15일

동참금 | 370만원
일 정 | 인천–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
아그라–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케사리야–바이샬리–
나란다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사르나트–델리–인천

▶10월 17일 출발~10월 31일 도착(15일 일정)
▶12월 26일 출발~01월 09일 도착(15일 일정)
▶01월 16일 출발~01월 30일 도착(15일 일정)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진관사 국행수륙재 입재…49일 대장정

칠재 동안 대덕 스님 법문, 회향선 종정 성파 대종사 법석도

어산 동희 스님 집전 하에 수륙재학교 스님들 설행

한국전쟁 정전70주년 맞아 전쟁 전몰자 등 영가 모셔

명상음악회, 지화 시연 등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전개


진관사가 9월 3일 국행수륙재 입재식을 봉행했다. 국행수륙재는 49일간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선시대 가장 큰 불교의식이었던 수륙재.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고혼 천도를 위한 600년 불교전통의식이 9월 3일 서울 진관사에서 다시금 설행됐다.

국가무형문화재 126호 지정 10년을 맞아 서울 진관사(회주 계호, 주지 법해)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대자비심으로 꽃피우는 생명과 평화의 기도'를 주제로 49일간 국행수륙재를 펼친다. 입재가 진행된 9월 3일에는 800여 불자들이 모여 수륙재에 동참했으며, 해외에서 온 외국인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륙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년 뿐만 아니라 1953년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당시 전몰자들의 영가도 천도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재주로, 조계종 첫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어산으로 직접 집전했으며, 진관사 수륙재학교 소속 스님들과 신도회, 청년회, 어린이법회 학생들까지 한마음이 되어 수륙재를 진행했다.

수륙재 입재에서는 대웅전과 함월당, 명부전 등에 공양물을 올리고, 명종으로 입재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과 영가에게 차와 국수를 대접하는 대령, 영가의 고단함과 번뇌를 씻기는 관욕 등이 이어졌다. 회주 계호 스님과 주지 법해 스님 등이 헌향과 헌다에 이어 배례하고 심대근 신도회장 등 신도들이 이어 잔을 올렸다.

영가 위패로는 특별히 이태원 사고 피해자,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한국전쟁 전몰자 등이 모셔졌다.

신중작법에 이어 법사로 나선 前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은 '수륙재 공덕의 복전'을 주제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했다.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악하고 못된 중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은혜를 갚을지 모를지라도 보살 수행을 하는 우리는 그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수륙대재에서 뭇생명을 천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이번 수륙재의 의미에 대해 "유주무주 고혼, 그리고 생명이 있는 생명이 없는 모든 영가님들을 모셔서 법식에 참여토록 하는 큰 의식"이라며 "올해는 특히 정전70주년과 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맞아 세계평화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과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관사는 10월 2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함월당에서 수륙재를 연다. 수륙재 기간 초재(9월 10일) 봉명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이재(9월 17일)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 삼재(9월 24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사재(10월 1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오재(10월 8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지운 스님, 육재(10월 15일) 조계종 前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이 법사로 나서며, 회향일인 칠재(10월 22일)에는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가 직접 법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3일에는 제19회 달오름산사음악회 '음악명상 콘서트'가 오후2시부터 진관사 마당에서 막을 연다. 또 10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진관사 지화장엄연구소가 주최하는 지화전시 특별전 '가피의 향기 꽃으로 피어나다'가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리며, 내방객이 많은 주말 10월 7일과 8일에는 지화 시연 및 체험도 가능하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가장 불교적 의례"

9월 5일 입재…10월 23일 회향

원명 스님 "자리이타 실천" 강조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돼있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에 돌입했다.

봉은사는 9월 5일 경내 법왕루에서 생전예수재를 실시하고 4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주지 원명 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생전예수재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장 불교적인 의례로 한국불교의 큰 틀"이라고 강조했다.

생전예수재는 죽은 뒤에 행할 불사(佛事)를 살아 있을 때 미리 닦아 사후(死後)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한 불교 전통의례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조선 중기에 성행했다. 현존하는 문헌에서 최초로 기록돼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동국세시기〉이며 문헌 기록에서는 예수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지금의 예수재라고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경기도 광주 봉은사가 현재의 봉은사이며, 최초로 예수재를 설행한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봉은사는 2017년부터 생전예수재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생전예수재 보존회를 설립해 생전예수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9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입재식에서 원명 스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당부했다.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부처님 가르침인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이라며 "보시하고, 지계를 잘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닦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생전예수재 입재식은 법안 스님과 도피안 스님, 설호 스님의 집전으로 헌공의식과 시식으로 진행됐다. 영가에서 음식과 법문을 베푸는 시식의식에는 대중들이 동참, 아미타부처님 앞에 헌다하고 필연적으로 지은 악업에 대한 업장소멸을 발원했다.

봉은사는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49일 간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육바라밀에 맞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시식과 법문을 진행한다. 9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주제로 정진하며 10월 12일 목요일에는 택전점안의식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10월 22~23일에는 불교의례 전통방식으로 회향식을 봉행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팔정도 메운 '천진불' 함성

은정불교재단, 제15회 나란다축제

'범종을 울려라' 100여 명 참가

봉은사 오현수 군 대상 수상해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자 물음표로 답을 대신한 아이들이 여럿 나왔다.

"오늘의 주인공, 나란다!"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9월 첫 주말 오후,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천진불들의 함성이 가득 울려 퍼졌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조계종 포교원이 공동 주최한 제15회 나란다축제 현장. 축제를 대표하는 초등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동국대 메인 광장인 팔정도에서 펼쳐졌다. 사찰별 예선을 거쳐 본 대회에 참가한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 첫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삼보(三寶)'에 관한 내용을 출제했다.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은 불, 법, 승입니다. 이 중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정답은 O, X로 적어주세요."

아이들은 사회자의 문제 출제가 끝나기도 전에 서로 화이트보드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주최 측도 100%의 정답률을 기대한 첫 문제. 하지만 몇몇 아이들이 답을 X로 써내며 첫 탈락을 맛봤다. 한 여자아이는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떨어진 게 마음 아팠는지 연신 눈물을 흘렸다.

탈락자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문제를 풀어가던 아이들은 주관식 일곱 번째 문제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몸의 다섯 부분을 바닥에 대고 하는 절의 명칭과 바닥에 닿는 몸의 부위를 적어보세요."

'삼배' '오체투지' '체투지' '배 · 다리' 등 다양한 오답과 함께 물음표만 적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정답 '오체투지'와 '이마 · 팔꿈치 · 무릎'이 공개되자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대거 탈락하자 분위기를 전환하는 패자부활전이 이어졌다.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맞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문제를 맞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주어진 음악에 춤을 추며 기회를 얻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탈락자가 남은 상황. "패자부활전마저 실패한 우리 아이를 구하고 싶은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아이들이 아닌 부모와 스님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무대에는 3명의 스님과 5명의 아이 엄마가 올라 마찬가지로 춤을 추며 남은 아이들의 도전 기회를 얻었다.

예년이면 문제 15개쯤 대회가 끝났을 테지만 올해는 20개를 넘도록 결선 진출자를 가리지 못했다. 그렇게 2시간여가 지나 12명의 결선 진출자만 남은 뒤, 배점을 매긴 총 10개의 추가문제로 순위를 매겨 1위를 선정했다.

문체부장관상에 해당하는 대상의 영예는 봉은사 소속 초등학교 5학년 오현수 군이 안았다. 상금은 200만원이 주어졌다. 오 군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빠에게 제일 고맙다"며 "1등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화계사 정재우 ·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정효현 학생이 받았다. 특히 조계사 소속인 최세연, 최세준 군은 형제가 함께 장려상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대회에 앞서 "제15회 나란다축제를 위해 동국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여러분은 우리와 부처님의 희망이자 주인공"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동국대는 여러분 같은 세상의 주인공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라며 "좋은 추억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5회 나란다축제는 '범종을 울려라' 외에도 상월선원 안거체험과 걷기 순례, 불교교리 경시대회,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진학 · 진로 엑스포, K-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풍경소리 "지하철 노후 게시판 교체"

9월 5일, 중간성과 발표

2281개 중 1187개 교체

"불특정 다수 포교 기여"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목종)가 9월 5일 서울 사무실에서 '지하철 노후 게시판 교체 불사'의 중간 성과를 발표하며 불사 원만 회향을 위한 사부대중의 동참을 당부했다.

풍경소리는 1999년 9월 '지하철 게시판 불사'를 시작했다. 당시 서울지하철공사 1-4호선 112개 역에 448개에 불과했던 게시판은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전국 797개역 2281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게시판 포교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낡고 부서지거나 역사정으로 철거되는 등 보수와 보충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풍경소리는 게시판을 일제히 교체하는 불사를 계획했다. 2018년부터 2년간 기관과 438명의 개인 동참으로 약 1억을 모연, 지난해 9월부터 385개 역 1187개 게시판을 교체했다. 그러나 원자재 및 인건비가 상승으로 아직 412개 역 1094개 게시판에 대한 교체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때문에 풍경소리는 모연 목표금액을 2억으로 재상정하고 불자들의 동참을 독려, 2024년 6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생활풍수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

9월 1일, 동국대에 2000만 원 쾌척



동국대 행정대학원 내 생활풍수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이하 동풍 총동문회)가 9월 1일 동국대에 학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사진〉

동풍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동국대 윤재웅 총장을 만나 동국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동풍 총동문회에 감사를 표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풍 총동문회는 2019년 발족 이후 동문 조직화에 앞장선데 이어 지난 4월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열어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생활풍수의 역할 등을 모색한 바 있다.

한편, 동풍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9월 8일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석부회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 연재

카카오페이지에 5편 연재

감상평 남기면 경품 증정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 문화사업단)이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를 제작해 9월 8일부터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한다.

이번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는 다양한 계층이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D.P의 웹툰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스튜디오 타이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웹툰은 총 5편으로 구성됐다. '아홉 개의 연못을 건너면 청년으로 변하는 백발노인(불국사)'와 '천불천탑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 '꼬끼오!(운주사)', '지긋지긋한 바위세(설악산 신흥사)', '암호를 풀고 해탈의 길로 향한 부상병(건봉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불국사와 운주사 이야기는 무빙툰으로도 제작돼 눈길을 끈다.

문화사업단은 시즌 2 연재를 기념해 감상평 경품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페이지에 감상평을 남기면 1000여 명에게 템플스테이 체험권, 꽃살문 USB, 카카오페이지 캐쉬 등을 증정한다. 기간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다. 김내영 기자

포교사단 제1회 포교수기 대상에 이석준

8월 29일 선정…대상 등 3편

9월 9일 19회 팔재계법회서 시상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전 대상에 이석준(송운, 인천경기지역단 불교문화해설3팀) 포교사의 '연꽃의 네가지 덕과 같은 포교를 하리라'가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8월 29일 서울 포교사단 본부에서 제1회 포교활동수기 심사를 열고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

원력상에는 강태윤(담덕, 대전세종충남 지역단 동부총괄 염불포교팀) 포교사의 '꽃향기를 남기고 갔단다'가 장려상에는 어윤식(혜도, 인천경기지역단 군13여주팀) 포교사의 '향기로운 세상을 위한 보현행원'이 차지했다. 심사에는 조계종 신도국장 윤성 스님, 고명석 조계종 미래본부 명상프로그램 연구위원이 공동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대상 '연꽃의 네가지 덕과 같은 포교를 하리라'는 하심하면서 교구 포교에 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아내도 포교사로 적극 권유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불자로 만드는 원력이 담겼다.

심사위원들은 "포교활동 공모전이기에 신행보다는 전법과 포교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한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연꽃을 피워내는 포교, 그 향기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번지게 한다는 포교사들의 글과 마음이 오늘날 진정한 포교정신임을 일깨워 준 공모전"이라고 총평했다.

당선작은 포교사단 홈페이지(pogyosadan.org)에서 볼 수 있다. 시상식은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진행되는 '포교사단 제19회 팔재계수계대법회'에서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봉선사, '제2회 큰말씀 겨루기대회' 연다

10월 8~9일, 개산 기념 교리경시대회 마련

지난해 개산을 기념해 첫 불교교리 경시대회를 개최했던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올해도 대회를 이어간다.

봉선사는 10월 8~9일 경내 청풍루에서 개산 1054주년을 기념해 '제2회 큰말씀 겨루기대회'를 연다. 불교교리를 주제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이 대회는 지난해에만 300여 명이 참가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어린이, 청소년, 일반부로 구분해 대회가 진행되는데, 지난해 대비 상금을 높여 참가자들의 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금은 대상 기준 일반부 200만원, 청소년부 70만원, 어린이부 50만원이며, 총 상금은 670만원이다. 첫날인 8일에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둘째 날인 9일엔 일반부가 진행된다.

출제범위는 부처님의 생애, 불교교리 전반, 봉선사 역사다. 전국의 불자 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자는 당일 흰색 상의를 착용해야 하며, 일반부의 경우 참여 인원이 많으면 예선전이 치러질 수 있다. 윤호섭 기자

오계 수지한 장병들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다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7.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현장

논산 육군훈련소=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일면 스님으로부터 연비를 받은 장병들은 계율을 지키며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9월 2일 수계법회
일면 스님, 오계 설하며 장병에 연비
1000여 장병들 동참…참회진언 봉독
삼보륜 도장 연비 받고 불자 거듭나
댄스 등 문화공연에 장병들 큰 호응

"저희 수계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습니다. 이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진리가 아닌 가르침은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귀의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는 세상의 으뜸가는 진리입니다. 자비하신 마음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1000여 명의 훈련병들이 군법당에서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2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여일 조성한 법사) 큰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지 3년만에 치러진 것이라 의미를 더했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김병주 국회의원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정현숙 후원회장, 불암사 전보현자 신도회장, 생명나눔실천본부 곽혜란 홍보위원, 이용환 육군훈련소장 및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단과 훈련소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들이 참석했다. 장병 1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청성, 청법가, 청사, 개도, 참회, 연비, 귀의, 선계상 및 법문, 발원, 계첩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계사로 나선 일면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의 의미를 설했다. 스님은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근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된다"면서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또한 부처님이 되는 터전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하고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하며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하고 병든 사람은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나 부처님이 되려면 삼귀의례와 오계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면 스님은 △생명을 죽이지 말 것 △도둑질 하지 말 것 △사음하지 말 것 △거짓말 하지 말 것 △술 취하지 말 것 등 오계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스님은 "부처님 오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신조이며 행동 강령"이라면서 "오계를 지키는 것은 자기 발견의 길이며 참생명 회복의 길이요 해탈의 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를 받는 것은 천 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전깃불을 밝히는 것과 같이 억겁의 무명을 일시에 타파하는 순간"이라면서 "수계는 크나큰 이익이 돼 계를 받은 장병들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축언했다.

연비는 향 대신 삼보륜 도장으로 대신했다. 대표 수계자 장병 7명이 단상에 올라 일면 스님으로부터 직접 연비를 받았다. 일면 스님은 계첩과 합장주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 소속 포교사 11명이 연비를 도왔다. 장병들은 포교사들이 다가오면 왼쪽 팔소매를 걷어 연비를 받고 다른 장병들의 연비가 모두 끝날 때까지 참회진언을 외었다.

이날 법회는 수계 이전 오계를 어긴 과거를 참회하고 앞으로 오계를 어긋남 없이 지킬 것을 서원하는 자리가 됐다. 장병들은 "수계한 공덕으로 삼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면서 "수계한 공덕을 법계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두 보리심을 발하게 하며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장엄하겠다"고 발원했다. 또 "영원과 자유를 구현하고 모든 중생을 교화해 원수와 친한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삶과 죽음의 윤회를 해탈케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 예비역 육군대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의 역임하며 30여 년간 군생활을 한 김병주 의원은 이날만큼은 선배로서 장병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들이 헌신해 준 덕분에 국가와 국민이 평안하다"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수계법회가 끝난 후 2부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준비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마하무용단과 의정부 광동고 · 남양주 광동고 댄스 동아리, 국악소녀 이소원과 임지민의 공연이 이어졌다. 장병들은 화려한 공연에 뜨겁게 환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수계법회에 앞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알리는 홍보 시간을 통해 장병들의 동참을 이끌기도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5년부터 논산 육군훈련소와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많은 훈련병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으며 현재 그 누적인원이 9000명에 이른다.



호국연무사서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육군훈련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장병들은 생명나눔 희망등록 캠페인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수계법회 후 열린 문화공연에서 장병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수계법회는 코로나19 후 3년 만에 치러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생명나눔은 9월 7일 박다윤 환아에 치료비 4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현대불교신문 사장 혜도 스님이 참석했다.

발달장애 환아에 400만원 지원

9월 7일, 혜도 스님 담당 복지사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7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환자치료비지원 전달식을 갖고 박다윤(7세, 가명) 환아에게 400만원을 지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사장 혜도 스님이 박다윤 환아를 대신해 참석한 큰솔병원 담당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9월 치료비 지원에 선정된 박다윤 환아는 발달장애와 뇌병변 장애 2급을 진단받아 만1~2세 발달수준을 보이는 아동이다. 자기조절능력이 낮아 요구사항이 있으면 머리를 박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자해행동을 반복하다보니 다윤이의 생활에 어머니가 항상 함께 해야하는 상황이다.

다윤이의 치료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는 직장 퇴근 이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다윤이의 치료비를 포함한 7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서 다윤이는 잠시 치료를 중단해야 했지만 이번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주 2회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를 전달한 현대불교신문 사장 혜도 스님은 "발달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인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치료를 중단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에 이달의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지원이 다윤이의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당신의 아름다운 선택"
장기기증 희망등록
홈페이지 www.lisa.or.kr
전 화 02)734-8050
팩 스 02)734-8052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제15회 불암사 산사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 30주년 The 30th Anniversary
새로운 도약, 여러분과 함께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
출연진 | 마하무용단, 비니쌤, 배근호, 주권기, 코리아로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광동고 댄스팀
TEL. 02-734-8050 (생명나눔) 031-527-8345 (불암사)

“청년불자 배가 운동, 봉선사가 마중물 되겠다”

특별인터뷰 호산 스님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후보)

남양주 봉선사=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제17대 주지후보로 前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당선됐다. 앞서 단독 입후보한 호산 스님은 9월 4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투표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제 총무원장의 임명장 수여 절차만 남은 가운데 10월 9일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호산 스님을 산중총회가 끝난 뒤 봉선사 염불원에서 만났다.

3개월간 교구 여론 경청

산중총회 구성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봉선사의 가장 큰 어른인 회주 밀운 스님에게 인사를 올린 뒤 만난 호산 스님은 장삼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한숨 돌린 스님에게 당선 소감부터 물었다.

“100%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야 하는데 혹여나 대중의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지후보에 도전하면 공약이나 종책을 내걸지만 사부대중의 바람을 먼저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대중공의를 모아 봉선사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쟁상대 없이 단독으로 주지후보에 나섰던 호산 스님의 고민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느껴졌다. 당선이 우선인 일반적인 선거처럼 공약부터 남발한 뒤 수습하지 못하는 일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총무원 총무부장 등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맡은 경험에서 비롯된 자세가 아닐까. 스님은 주지 개인이 아닌 봉선사 전체의 원력을 강조했다.

“봉선사는 교종본찰이지만 교리뿐만 아니라 선(禪), 의례, 불교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본사입니다. 월초 대화상부터 운허 · 운경, 조실 월운 큰스님 등 어른스님들의 사명감이 이어졌으니까요. 이런 큰스님들의 원력은 저 혼자가 아닌 사부대중이 함께 계승해야 합니다. 대중공의를 모으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봉선사는 이번 주지후보 선거를 앞두고 문중별 의견을 수렴해 일찍이 호산 스님을 적임자로 낙점했다. 출마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지만 호산 스님을 제외한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과거 선거에서 복수 후보로 시작해 단일화를 이룬 것과 달리 애초부터 모두가 한 사람만을 지지한 셈이다. 여기에는 얼마 전 원적에 든 월운 대강백께서 남긴 화합의 가르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실스님 장례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조문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만큼 조실스님께서 남긴 업적이 크고, 후학들에게 보이신 덕화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부대중이 망상 피우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합하라는 말씀을 구성원 모두가 되새겼을 겁니다. 입적하시면서도 교구 구성원의 뜻을 모아주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불자 포교, 과제 아닌 숙명

수도권 가운데 경기북부를 책임지는 유일한 교구본사인 봉선사. 승려복지뿐만 아니라 청소년포교, 승보공양, 문화축제 등으로 대중과 호흡해온 모범 사찰이다. 국내 최대 스노보드대회인 ‘달마오픈’을 창설하고 비보이 경연대회를 주최하며, 스포츠 · 문화포교에 앞장서온 호산 스님과의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사진 왼쪽)과 호산 스님은 서로 손을 꼭 쥐고 교구발전을 염원했다.

단독 입후보 9월 4일 당선 확정
“기쁜 마음에 큰 부담감도 느껴”

교리 · 선 · 의례 두루 갖춘 본사
개인보다 교구 전체 원력 중요

비불자 포교 위한 콘텐츠 개발
대학생 포교 거점 도량 발원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건 정치인이 할 수 없습니다. 케이팝(K-pop) 가수, 운동선수, 예술인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결국엔 포교도 얼마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대중을 만족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말이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봉선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고요. 머릿속에 그려놓은 문화포교 방편들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작 열네 살의 나이에 출가해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봉선사로 온 호산 스님. 당시 주지는 월운 스님이었다. 1980년대 ‘포교’라는 말 자체가 다소 생소했던 시기, 청소년이었던 호산 스님은 월운 스님 손을 잡고 군법당과 포교당 등을 좇아다녔다. 어린이, 학생, 군인, 성인까지 눈높이에 맞춰 설법하며 소통하는 월운 스님의 모습은 호산 스님을 포교에 매진하게 한 지남이기도 하다. 봉은사에서 쌀을 얻어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어려운 봉선사였지만 큰스님들은 한순간도 포교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얼마 전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등 사찰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잖아요. 거기에 케이팝 댄스 시간도 있었죠. 그 덕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보다 빨리 한국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삭발을 체험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바가 큽니다.”

호산 스님은 출가 이후 줄곧 선방을 다니며 수좌로서의 길을 걸었다. 용맹정진으로 도인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출가생활을 하면서 종단 행정을 할 것이라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슨 인연인지 서울 수국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사판으로서의 역할이 커졌다. 이판과 사판을 제대로 경험한 것. 둘의 차이를 묻는 우문(愚問)에 스님의 현답(賢答)이 돌아왔다.

“예전에야 이판과 사판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뛰어넘은 시대가 오지 않았나요? 참선이든 포교든 행정이든 수처작주 할 수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찾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선만 하고 있으면 불교의 존속이 어려워지겠죠. 교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교구를 운영하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사실 뭐든 치열하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노력해도 불교중흥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상월결사는 삶의 전환점

호산 스님은 2019년 11월 아파트 공사현장 한복판인 위례 신도시에서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동참했다. 상월결사 회주인 자승 스님의 풍찬노숙 제안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출가 이후 40년간 무언가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고민에 빠졌던 호산 스님에게 상월결사는 수행생활의 전환점으로 다가왔다.

“천막결사에 들어갈 때가 출가 4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때 저는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던 참이었죠. 승려 생활 40년을 제대로 보낸 건가 싶기도 하고, 스스로 나태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때 회주스님 말씀을 듣고 도전정신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마치 밋밋한 음식만 먹다가 자극적인 게 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죽을 각오로 극한의 수행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한겨울 천막에서 석 달 안거를 보낸 스님은 이후로도 늘 상월결사에 함께했다. 국난극복 자비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올 초 49일간 펼쳐진 인도순례까지. 결사 중에 겪은 많은 어려움과 감동은 호산 스님의 포교 원력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대학생 포교에 사활을 건 상월결사의 뜻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본사가 지역 대학의 전법을 책임지기로 한 만큼 봉선사부터 앞장서 대학생, 청년포교를 이끌어야죠. 청년불자 배가 운동을 대표하는 도량이 될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산 스님은 곁에 있던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두 손을 꼭 쥐었다. “형님께 누가 되지 않겠다”는 호산 스님의 말에 인묵 스님은 그저 환한 미소로 답했다. 조선시대 ‘선왕을 받든다’는 봉선(奉先)의 뜻은 화합을 강조한 어른스님들의 유지를 잇는 것으로 어느새 변했을지 모른다.



호산 스님은 종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수계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문경 봉암사와 합천 해인사, 김천 수도암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양평 상원사와 용문사, 서울 수국사 주지, 제16 · 17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를 맡고 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장(2010)과 문화체육관광부 템플스테이 공로 표창장(2014)을 받았다.

법보시·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12



현대불교신문 법보시 · 구독 및 후원 신청서

법보시·구독 신청서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납부방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25일
- 입금 계좌번호 :
  - □국민은행 245-25-0001-461
  - □농협은행 053-01-269050
  -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후원 신청서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후원금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 접수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 자동이체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마음 내려놓는 것, 궁극적인 방생”

조계사, 9월 3일 담양 용흥사서 방생법회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수와 산림, 그리고 전통사찰이 어우러진 전남 담양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9월 3일 계묘년 하안거 회향을 맞아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를 찾아 특별한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3000여 명의 조계사 신도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을 비롯해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노 담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방생의 가장 큰 의미는 생각을 쉬는 것이고, 마음을 놓는 것이 궁극적인 방생”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선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니 좋은 인연으로 선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용흥사는 조선 8대 비보사찰 중 하나다. 웅장한 비기를 품고 있는 사찰이었으나 전란으로 소실돼 최근 2000년부터 복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숙빈 최 씨가 이곳에서 기도해 영조를 낳은 영험 있는 천년고찰”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당초 비소식이 있어 걱정했지만 다행히 화창한 날씨에 방생법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생명살림 방생기도에 동참한 공덕으로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은 영산강 시원지를 갖고 있는 생태도시다. 많은 문화유적을 품은 내륙형 관광의 일번지이자 남도 멋을 간직한 고을”이라며 조계사 측의 담양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는 ‘생명살림’의 의미를 담은 치어 방생, 몸이 아픈 지역 어린이 10명에게 각 100만원의 성금과 선물 전달이 진행됐다. 또한 오랫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선원과 율원 등 수행도량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용흥사를 위해 조계사가 불사지원금 5000만원, 이승현 신도회장이 1000만원, 신도회장단 1200만원, 자문위원회 10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참가한 신도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담양의 지역특산품 매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물 살리기에 동참했다. 조계사는 이미 경내에 전남 담양과 장성의 농산품으로 직거래 형태의 매장을 운영해 많은 지역상품을 구매한바 있다. 이날 행사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상단불공에 이어 빙생기도, 법문, 기금전달식, 치사, 시식, 방생이 진행됐다.



9월 3일 담양 용흥사에서 봉행된 조계사 생명살림 방생법회.

범어사, 수해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9월 2일, 지유 대종사 백중 회향법문 설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9월 2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회향했다.<사진>

범어사는 90일 동안 선지식 초청 법회를 봉행하며 백중기간 조상영가천도를 위해 기도해왔다. 특히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과 임원진들은 최근 발생한 수해 희생자를 위한 기도시간을 갖고, 마지막 회향 관음시식에서 함께 절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백중지장기도에는 지유 대종사와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승가대학장 정한 스님, 율학승가대학장 원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300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동참했다.

대령관욕 의식을 시작으로 상단불공, 명종5타, 개식사, 삼귀의례, 음성공양 및 차 공양, 지유 대종사의 회향 법문, 관음시식, ‘금강경’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시식 후 스님들이 선두를 이룬 행렬을 따라 위패를 이운 했으며 참석 대중은 함께 소대로 이동해 봉송 의식을 봉행했다.



지유 대종사는 백중의 유래와 목련존자의 효심을 설명하며 “현재 모습은 과거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선업과 악업의 그림자와 같다”며 “스스로 지은 업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지난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지역이 수해피해를 겪어 안타까움이 많았다. 특히 수해로 인해 희생자가 있었는데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함께 애도하고 천도의 뜻을 보내셨다”며 “범어사는 백중 기간 동안 수해피해자들을 위해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해왔다. 신도들도 함께 동참하며 그분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누구나 사찰서 즐기는 명상수행

부산 마하사, 오는 17일까지 연제구 웰니스 프로그램 제공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가 9월 2일 경내 대웅전에서 ‘마하 아하! 마하 위크-연제구 체험형 웰니스관광콘텐츠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사업은 부산 연제구와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민 대상 힐링 사업이다.

개막식에는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을 비롯해 이주환 국회의원, 주석수 연제구청장, 최홍찬 연제구의회 의장 및 사부대중 4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정산 스님은 “도시문명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마하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을 안내하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이 대중에게 그룹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이주환 국회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찾는 시민들이 명상을 접하고 몸과 마음에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시민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돼 감사하게 생각한다. 연제구청도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찬 연제구의회 의장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평안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개막식 이후 주지 정산 스님은 그룹명상을 진행하며 명상에 대한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진 절명상에서는 혜성 스님이 절 수행법을 설명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불화 컬러링 아트테라피와 만다라 그리기도 이어졌다.

‘마하 아하! 마하 위크-연제구 체험형 웰니스관광콘텐츠 사업’은 오는 17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진행된다. 총 3주차 동안 공통 프로그램인 절명상과 그룹명상(호흡)이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느낌 나누기가 진행된다. 특화 프로그램은 불화 컬러링, 만다라 그리기, 연산모종 사운드배스, 싱잉볼 알아차림 명상, 사찰푸드 테라피가 마련됐다. 특히 사찰푸드 테라피는 감정 노동자를 위한 시간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매회 40명(사찰 푸드 테라피의 경우 20명)씩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연제구청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051)866-060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광학원, 설립자 만암 대종사 기려

대승원 1층 입구에 대종사 존상 제막

불교교육 선구자이자 불교종립 정광학원 설립자인 만암 대종사의 존상이 제막됐다.

불교종립 광주 정광학원(이사장 자공)은 9월 4일 대승원 1층 입구에 설립자 만암 대종사의 좌정한 존상 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영림 장인이 제작한 존상은 청동으로 높이 110㎝, 폭 90㎝ 크기로, 만암 대종사가 50대에 활동한 모습을 표현했다.

제막식에는 이사장 자공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등 정광학원 이사와 이동배 정광고교장, 정경심 정광중학교장이 참여했다. 제막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약력 소개 및 경과보고, 제막, 헌화, 인사말, 사홍서원,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자공 스님은 “만암 대종사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설립하셨고, 그 높은 뜻이 오늘날 광주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했다”며 “‘배고픈 시기에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큰스님의 원력이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존상 제작 책임을 맡은 만당 스님은 “1920~30년대 큰스님의 모습을 담은 형상으로 육계와 높은 수행자 눈동자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존상은 화강암 기단 위에 가죽나무 받침을 넣어, 학교의 상징인 대승원 입구에 안치했다. 존상은 지난 2022년 제작한 흉상 형식을 대신해 새롭게 조성됐다.

한편 만암 대종사(1876~1957)는 1910년 백양사 청류암에 신교육기관 광성의숙을 설립하고, 1916년 민족의식교육을 위한 심상학교,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 전신) 설립, 1946년 목포 정혜원에 정광학원·정광중학교 설립, 1947년 불교정화를 위한 호남고불총림 결성, 1948년 현 광주 광산구 송정읍으로 정광중학교를 이전하고 1951년 정광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했다. 1951년 조선불교 제3대 교정과 1954년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종정에 취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8년 이어온 교구 본·말사 연합방생

제13교구본사 쌍계사, 남해 관음포서 법회 봉행

고산 대종사의 원력으로 매년 하안거를 마치고 본말사 사부대중이 봉행해 온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주지 영담)의 제38회 자비방생법회가 9월 1일 이순신장군 순국지인 남해 관음포에서 거행됐다.

자비방생법회는 판소리 갈라쇼, 범패, 자비방생법회 축원, 육법공양, 개회식, 대회사, 환영사 및 내빈소개, 청법가, 법어, 축사, 방생 순으로 봉행됐다.

쌍계사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쌍계사 방장 고산 대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시작된 자비방생법회가 38년 동안 이어져온 것은 적극 동참하고 지원해주신 본말사 대중스님들의 인고의 노력 덕분”이라며 “천지는 동근이요 만물은 일체라고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처럼 뭇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환경과 자연환경까지 방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주의, 주장이 만연된 역동적인 사회인 반면, 국민통합과 소통에는 다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때에 불자가 먼저 이웃과 소통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나아가 세계와도 소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 38년 동안 방생법회를 해온 건 쌍계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야단법석”이라며 “경남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화합을 다지고


9월 1일 남해 관음포에서 봉행된 쌍계사 본말사 연합방생법회.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시키는 법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환영사에서 “자비방생법회는 생명존중과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님들의 뜻을 실현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방생법회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 하시고 불국토를 이루는 큰 걸음이 여기서 시작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쌍계사 자비방생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치어 1만5000여 마리를 관음포 앞바다에 방생하며 나라의 번영과 사회의 안정,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자비방생법회에는 쌍계사 교구장 영담 스님,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남해사암연합회장 성각 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최만림 행정부지사, 임태식 남해군의회의장, 각 사찰 대중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공당 월주 대종사 사회운동 조명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지구촌공생회 추모학술대회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보살도를 실천하며 한국불교계의 사회운동을 이끈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조명하는 추모학술대회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지구촌공생회가 주최한 추모학술대회는 ‘태공당 월주 대종사, 진속불이(眞俗不二)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9월 1일 전주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에서 열렸다. 추모학술대회는 나눔의집, 지구촌공생회, 함께일하는재단 등을 통해 월주 대종사가 실천한 사회활동을 집중 조명했다.

학술대회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의 사회로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의 ‘태공당 월주대종사와 나눔의집’,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와 지구촌공생회’,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와 함께일하는재단’,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와 전북불교 사례에서 찾아보는 지역불교 활성화 모델’, 이현수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 승탑 건립을 위한 소견’이 발표됐다. 이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을 좌장으로 종합토론과 총평이 진행됐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종단을 위해 젊음을 바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웃종교인과 손을 맞잡았다”며 “평생 중생의 이익을 위해 진력해 오신 스님의 보살도 정신을 조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은 “학술대회를 주관해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과 패널들께 감사드린다”며 “월주 대종사의 사상과 보살도 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학술대회가 9월 1일 전주 서고사에서 열렸다.

‘현대적 해석’ 순천 세계유산축전 성료

괘불탱화 디지털 기술로 재현해 호평 받아

8월 한 달간 순천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와 순천 갯벌을 만끽할 수 있는 ‘2023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이 막을 내렸다.<사진> 지난 9월 2일 선암사 대웅전 앞에서 진행된 ‘선암사 괘불 디지털아트 퍼포먼스-야단법석’을 끝으로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마쳐 내년 행사를 기대하게 했다. 폐막과 함께 펼쳐진 행사는 선암사 대웅전 마당에서 석가모니불 괘불탱화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차원으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무대였다.

이날 대웅전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선암사의 자연과 사물에 대한 영감, 괘불탱화의 화려한 색채와 신비한 분위기가 실감 영상 콘텐츠로 구현돼 관람객들이 괘불탱화에 둘러싸인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재근 축제위원장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순천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내년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선암사 괘불은 예술적 가치가 높아 미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연구대상이 돼 왔다. 특히 이번 영상으로 재현한 괘불은 이러한 가치를 디지털아트 퍼포먼스로 선보여 디지털아트의 매력을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의 평면적 그림과는 다른 색다른 시각과 느낌을 전달해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선암사 괘불탱화에 영감을 받은 퍼포먼스 팀은 “‘나를 찾아서’라는 부제로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고, 나를 찾는 여행의 끝에는 모두가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순천 세계유산축전 추진위원회 측은 “이번 괘불 디지털아트 퍼포먼스-야단법석은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의 대화를 디지털아트라는 매개체로 표현하면서 세계유산 선암사의 의미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캄보디아 초등학교서 불교 접목 교육 '인기'

왓 캄펭 초등 1~6학년 628명에
월 1회 명상 · 불교적 윤리 진행
마음에 불교 지혜 넣는게 목표
스님 11명 자원봉사 · 기부 운영

박영빈 객원기자



학교에서 스님들이 진행하는 불교윤리 교육의 모습. 사진출처=더 프놈펜 포스트

캄보디아 제2의 도시인 바탐방. 이곳의 중심부에 위치한 캄메아코르 마을의 초등학교들에서는 초등교육에 불교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캄보디아의 '더 프놈펜 포스트'는 왓 캄펭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불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왓 캄펭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2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불교에 대한 추가적인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납 롬두올 부교장은 "2012년부터 수업이 시작됐다. 현재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수업을 진행하며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시간씩 진행한다. 현재 이 지역에서 이곳을 포함에 3곳의 학교에서 불교수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수업을 소개했다.

수업의 내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을 근간한 윤리교육이다. 수업에는 기도와 명상을 포함해 불교적인 윤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프로그램은 캄보디아에서 존경받는 고승인 학 시엥하이 스님이 이끄는 '캄보디아 교육불교(BEC)'에서 시작됐다.

BEC의 프로젝트 관리자인 토운 팔리 스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목표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교의 지혜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팔리 스님 "오늘날 청소년들 가운데 불교의 가르침을 일찍 접해 윤리적인 삶을 영위하고 마음의 위안을 찾는 이들도 많지만, 다양한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계획을 개척한 것이 현재의 교육불교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팔리 스님은 "학생들에게 규율과 도덕적 나침반을 심어주는 것은 단지 스님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규 교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역할을 나누어 교사들이 이론적인 윤리를 지도하면, 스님들은 학생들에게 불교에 내재된 마음의 평화를 소개한다"며 교육 프로그램은 정교교육과 균형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롬두올 부교장은 스님들의 수업에 대해 "스님들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 회복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현재 수업은 11명의 스님들이 번갈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스님들의 자원봉사와 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팔리 스님은 "교육에 나설 수 있는 스님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초등 및 중등 수준에서 이미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에 나서지 못하는 스님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보재를 기부하는 것으로 수업을 돕고있다"고 전했다.

불교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바탐방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지 교육국의 트리 학 사무국장은 "스님들의 통찰력과 교육당국 간의 협력은 청소년들에게 윤리적인 삶의 구조를 진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업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몽골 방문 "덕행 따라 살아야"

9월 3일, 종교 대표자 회의서
법구경 인용하며 '화합' 강조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3일 몽골에서 열린 종교간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몽골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 간 대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법구경 등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종교와 관계없이 덕을 쌓는 사람이 될 것'을 강조했다.

AP통신 ·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9월 3일 불교, 이슬람교, 유대인,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인 등 다양한 종교계 대표자들과 함께 종교 간 회의에 참석했다. 역대 교황 중 몽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몽골 불교의 최고 수장이자 울란바토르 간단 수도원(Gandan Monastery)의 주지인 캄바 노문 칸(Khamba Nomun Khan)도 불교 지도자 대표로 배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간 신념은 결코 대비되는 게 아니다"라며 "종교 간 대화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겸손과 봉사의 마음으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우리는 고대 지혜 학파의 겸손한 계승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부처의 가르침 중 '지혜로운 자는 베푸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고 한 예수의 말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법구경 중 "꽃향기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만 퍼지고, 덕행에 따라 사는 이들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꽃향기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덕(德)의 향기는 걸림 없이 온 천지에 퍼진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몽골 불교의 탄압 시기를 언급하며 "몽골이 과거 고통에 대한 기억을 딛고 어두운 상처를 빛의 원천으로, 무의미한 폭력을 삶의 지혜로, 파괴적인 악을 건설적인 선으로 바꾸는데 불교 공동체가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몽골 불교는 20세기 초 약 11만명의 불교 승려와 약 700개 수도원이 건설될 만큼 번성했으나 1921년 몽골 인민당의 탄압 탓에 많은 수도원이 파괴되고 일부 승려들은 살해되거나 강제로 승복을 벗어야 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1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인 2일에는 몽골의 정치 지도자들과 만났다. 아울러 3일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스텝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미사에서 중국을 향해 종교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몽골은 전체 인구 약 340만명 중 60% 이상이 종교를 믿으며 대다수가 불교도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1% 수준인 1450명 정도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 소프트 파워 전략에 불교 활용

모디 총리 취임 후 불교 지원 두드러져



부탄을 방문해 스님들과 사진을 찍은 인도 모디총리. 사진출처=E-인터내셔널 릴레이션쉽

인도가 외교정책에서 불교를 소프트 파워의 전략으로 활용하며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국제관계에 대한 논설을 게재하는 'E-인터내셔널 릴레이션쉽'은 인도정부가 소프트 파워, 소프트 밸런싱으로 활용하는 불교에 대해 전했다.

2014년 정권을 잡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책 하에서 인도에서의 불교는 비약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모디 총리는 스스로 '인도식의 불교 비전'을 제시하고 불교국가인 주변국가들과의 유대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주요 분석가들은 이미 모디 총리가 취임초기부터 불교를 인도의 활발한 새 외교의 중심에 두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리는 2015년,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인도정부는 이웃한 불교국가들이 이 성지에서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선언했으며, 같은 달엔 인도가 아시아 전역의 불교 유산을 증진하는데 앞장서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인도정부의 불교지원은 중국이 진행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지정학적 장점을 불교라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는 현재 국제불교연맹(IBC)를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제1회 세계 불교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현재 인도정부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원천인 인도 날란다 사원의 전통이 인도에 있음을 강조하며 '날란다 불교 전통'에 대한 다양한 학술대회와 회의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으로 인도불교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날란다 불교 전통의 후예를 자처하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망명중인 상황에서,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산재한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인도정부 문화부는 2018년 결성된 '인도 히말라야 날란다 불교 전통 협의회(IHCNBT)'의 운영자금을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정부의 행보에 대해 미낙시 레키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인도 불교가 유라시아를 통해 아시아에 퍼진 것을 강조하며 "인도는 이러한 철학, 사상,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이자 원천이었다. 이를 연구하고 부흥시키는 것은 인도의 국가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네팔 대지진에 훼손된 불교 스투파 복원

인도 정부 지원…'공동 문화' 반영



복원된 스투파 앞에서 네팔 주재 인도대사와 랄릿푸르시장.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훼손된 5세기 불교 스투파가 복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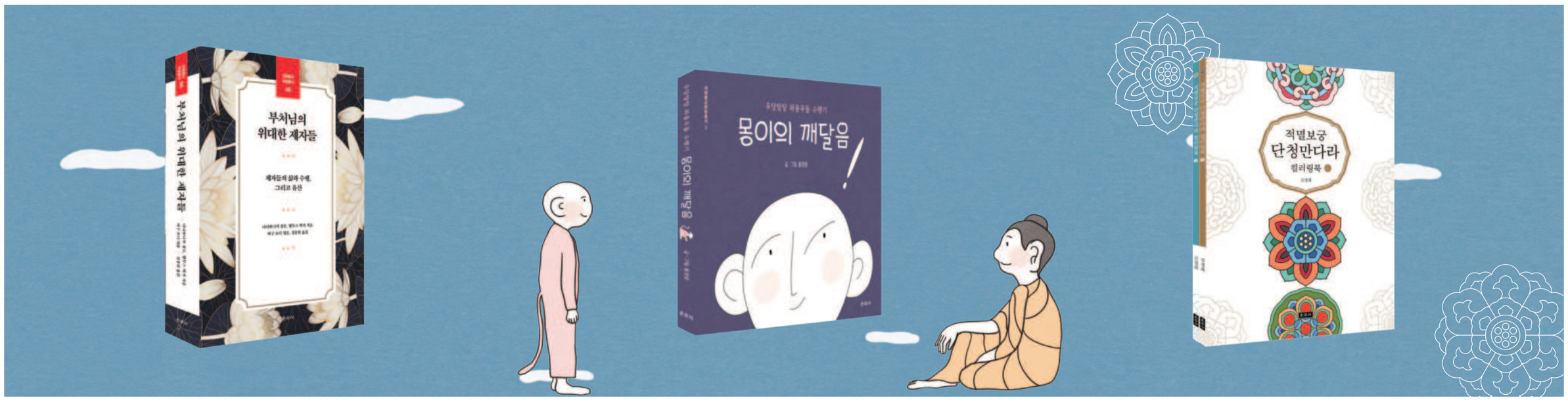
9월 3일(현지시간) 데칸헤럴드(deccanherald)에 따르면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7km 떨어진 랄릿푸르(Lalitpur) 지역에 위치한 5세기 불교 스투파가 인도의 지원으로 재건돼 마침내 대중에 공개됐다.

네팔 주재 인도 대사 나빈 스리바스타바(Naveen Srivastava)는 "여러 분야에서 인도와 네팔 간 강력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인도와 네팔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역사적인 문화적 유사성과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과거에도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네팔과 협력해 왔으며 이는 '우호관계의 힘인 우리 공동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랄릿푸르 지역 시장 치리 바두 마하르잔은 "인도가 자신의 지역과 네팔 전역에서 문화유산 보존 계획을 진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했다.

인도 정부는 슈리 나피찬드라 마하비하르 외에도 2015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랄릿푸르의 유적지 6곳을 재건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서쪽 80km 지점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약 9000명이 사망하고 2만 1000명 이상이 부상 당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음을 증명하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해 갔는지를, 가장 뛰어난 제자 24명의 삶과 수행을 통해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냐나뽀니까 장로, 헬무스 헥커 지음/김충현 옮김/신국판/728쪽/값 40,000원

수행 입문자를 위한 명상 카툰!

몽이의 깨달음

'깨달음이란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좌충우돌 몽이의 생각과 성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용정운 글, 그림/사륙배판 변형/236쪽/값 17,000원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그리다!

적멸보궁 단청만다라 컬러링북 1 2

통도사, 중대사자암,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에 그려진 아름답고 성스러운 단청을 54컷의 일러스트로 만들어 누구나 색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희 지음/국배판/각권 64쪽/각권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6~9/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조미애 그림	운주사	6	불교 의식의 꽃 천수경 강의	김성규	통섭출판사
2	철학으로서의 불교(대원불교 학술총서 09)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7	부처님의 생애+불교입문+불교개설 중단본 3권세트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초기불교 입문 : 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8	초학자와 함께 하는 계율공부	정현/서주 그림	담앤북스
4	불교 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5	금강반야바라밀경 금필사경		짐모아	10	대반열반경(불교 경전12)	강기희	민족사

책세상

붓다 가르침 가장 순수하게 남은 최고 경전



숫따니빠따

이중표 역주
불광출판사
3만원



저자 이중표 명예교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한국불교계 대표 석학인 이중표 교수의 완벽한 번역으로 읽는 소박한 불교 정수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접했을 것이고, 불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지나가다 한 번은 접해 봤을 구절이다. 하지만 그 출처가 불교 경전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유명한 구절이 수록된 경전은 바로 〈숫따니빠따〉다.

〈담마빠다〉와 함께, 초기경전인 5부 니까야 가운데 〈쿳다가 니까야〉에 수록되어 있는 〈숫따니빠따(Sutta-Nipāta)〉는 '불교 경전'을 뜻하는 '숫따(Sutta)'와 '모아놓다'라는 의미의 '니빠따(Nipāta)'의 합성어로서, 제목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경전 모음'이라는 뜻이다. 그 의미에 걸맞게 〈숫따니빠따〉에는 72개의 경전, 1149개의 게송이 수록돼 있다. 특히 수록된 경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물의 연대를 근거로, 누구도 이견 없이 가장 오래된 경전, 최초의 경전으로 꼽는 경전이기도 하다.

그러나 〈숫따니빠따〉가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운문 형식의 간결한 문장과 쉬운 내용 덕분에 남방불교권에서 일찍부터 널리 사랑받아왔던 것과 달리, 한문으로 번역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승불교권에는 〈숫따니빠따〉가 잘 알려지지 못했다. 결국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1년에 이르러서였는데, 법정 스님이 일본어 번역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 출간되면서부터였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종의 〈숫따니빠따〉 번역서가 출간되었지만 그동안의 번역서는 모두 의미 전달과 원전의 형식, 두 가지 중 하나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운문으로 된 원전의 운율을 포기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거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 본래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모호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번역자 이중표 교수는 두 가지를 모두 살렸다. 먼저, 철저한 사전 작업을 통해 기존 번역서들의 오류를 면밀히 파악하고, 빠알리어 경전과 사전을 폭넓게 검토해 단어들의 다양한 용례를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새롭게 원전을 번역하면서 기존 번역서들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표현의 적확성을 높이고, 문맥을 해치지 않는 의역을 통해 가독성과 리듬감을 살렸다. 원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본래의 뜻과 의역한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동아시아 불교사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자취를 남긴 대표 역경가 구마라집은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에 대해서 "마치 밥을 씹어서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평했다. 음식의 영양분, 즉 문장의 뜻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원전이 지닌 본래의 맛까지 전달해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 구마라집의 말처럼 각기 다른 체계와 표기법, 문화적 배경을 지닌 두 언어를 완벽하게 일치시켜 번역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원전의 뜻을 가능한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읽기에는 편한 문장으로 옮기는 사람을 좋은 번역자로 꼽는다. 그래서 번역자에게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해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의 번역자인 이중표 명예교수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석학으로서 30여 년간 경전 번역과 불서 집필에 매진해 왔기 때문이다. 깊은 철학적 사유와 원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대한 초기경전 가운데 핵심 부분만을 정리해서 옮긴 '정선(精選) 니까야 시리즈'를 비롯하여 붓다의 가르침과 불교 교리의 정수를 담은 책을 여러 권 출간하였다. 이 책들은 모두 이미 불교를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중표 교수는 〈숫따니빠따〉에 특히 더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번역된 원고를 거듭 퇴고하면서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신중하게 골랐다. 뿐만 아니라 번역한 게송을 가사로 쓰는 곡을 만들어 운율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불교 경전을 접하고, 조금 더 바르게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하고픈 마음에서다.

이번에 출간된 〈숫따니빠따〉는 평상시에도 쉽게 가까이할 수 있도록 가볍고 튼튼한 가죽 재질의 표지와 휴대하기 편한 아담한 크기로 책을 만들었다. 누구나 쉽게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에 담긴 불교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중표 저자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정선 디가 니까야〉 〈정선 맛지마 니까야〉 〈정선 쌍윳따 니까야〉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담마빠따〉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근본불교〉 외 여러 책이 있으며, 역서로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불교와 양자역학〉 등이 있다.

내 아이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한 10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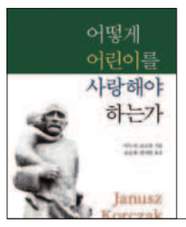
깨어있는 양육

셰팔리 차바리 지음·구미화 옮김
나무의 마음
1만7800원

〈깨어있는 양육〉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 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깨어있는 부모〉를 펴낸 뒤 셰팔리 박사가 2년 만에 내놓은 양육 실전편으로 '훈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 학교와 사회에서 일탈행위를 하는 아이의 심리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그 해법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셰팔리 박사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는 물론, 학교폭력, 각종 사회 범죄 등이 각각 다른 문제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식을 억압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아이와 교감을 나누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WINNER'라고 이름을 붙인 윈윈 전략, 즉 지켜보기(Witness), 물어보기(Inquire), 중립 지키기(Neutrality), 협상하기(Negotiate), 공감하기(Empathize), 해결하기(Resolve)의 6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어린이 인권을 외치다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는가

야누쉬 코르착 지음
송순재, 안미현 옮김
살림터 / 2만3000원

폴란드의 전설적인 교육자 야누쉬 코르착이 1920년대 출간한 책이 2002년 우리말로 출간한 후 이번에 복간본으로 재탄생했다. 교육에 관한 그의 방법과 사유와 언설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그는 현장 앞에서 스스로 생각했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 나갔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코르착이 '어린이의 변호자'를 자처한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부당한 외적 권위에 노출돼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에 단호히 맞서고자 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자신의 그러한 의도를 '자유대헌장'이라는 명제에 담아 제시했다. 폴란드 정부는 1978년 코르착 사상에 기초해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초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그의 삶의 행적과 목소리는 1989년, '유엔아동인권협약'으로 하나의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책은 그가 소련-폴란드 전쟁 기간 중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집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경의로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임은호 기자

의상·원효 스님의 한국 서정시 출발점



한국 불교시의 기원
의상과 원효 그리고 균여

서철원 지음
에피스테메
2만2000원

〈한국 불교시의 기원〉은 우리나라 서정시의 출발점에 서 있던 불교시를 주제로 한국 고전시가와 고대 불교의 역사적인 만남을 다룬다.

종교시, 그 가운데서도 불교시와 관련된 연구는 문학사와 사상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접합점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용어와 개념설명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책에서는 지난 날의 한계를 넘어 당시 문학과 사상, 예술과 문화 등에 얽힌 자료를 망라해 살펴본다.

특히 향가의 시어 구축에 크게 이바지한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의 '문학'적 행보에 주목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사상사에 불가결한 자취를 남겼지만, 문학 연구에서는 대체로 설화 속 주인공으로만 기억돼 왔다. 그러나 의상 스님은 〈법성게〉를 통해 10만여 자의 〈화엄경〉을 210자로 압축하는 이론의 깊이를 보였고, 원효는 270행의 장편 게송 〈대승육정참회〉로 실천에 관해 폭넓게 성찰했다.

결국, 의상 스님의 시어와 원효 스님의 참회, 그들의 게송에 이어진 균여의 향가가 한국 불교시의 기원을 이룬 셈이다. 김내영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전남 북부 불교문화유산 '한자리에'


백양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

불교중앙박물관 '백암산 백양사'展
9월 8일~12월 10일 특별전 개최
백양사 본말사 성보 132점 전시
명부전 지장보살상, 발원문 첫 공개

김내영 기자 rlasodnd0994@naver.com

전남 북부 지역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과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는 9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백암산 백양사'를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백양사가 보존 전승해 온 국보급 성보를 중심으로 전남 북부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용흥사, 불갑사, 심향사 등 백양사 말사의 성보 총 92건, 132점이 전시된다.

제1전시실에서는 백양사의 창건과 역사가 담긴 주요 성보를 선보인다. 1650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요대사탑'과 극락보전에 모셔진 '목조아미타불좌상', '아미타회상도'는 백양사 소장 국가지정문화재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운상의 어려움으로 이번 특별전에는 전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에 조명되지 않았던 '팔상도', 목공예가 불화와 결합된 '문', 국내 유일 칠원성군상인 '소조칠원성군상' 등 새로운 불교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특히 최근 발견돼 조성연대가 확인된 1653년 작품인 '명부전 지장보살좌상'과 발원문인 '조성필공기'가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고려시대 중창주인 '각진 국사 진영'을 비롯해 황응 탄영 스님이 필사하고 금해 관영 스님이 소장했던 '서장기' 등 백양사의 고승들과 관련된 성보도 눈길을 끈다.

희소성이 있어 그 가치를 더욱 크게 평가받는다는 건칠부처님도 친견할 수 있다. 제2전시실에는 '전남 북부 불교문화'를 주제로 '나주 불회사 건칠아미타불좌상(보물)'과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불좌상(보물)',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유형문화재)' 등 3점을 한 공간에서 선보인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괘불인 '나주 죽림사 괘불(보물)'과 무염 스님의 초기 작품인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중 '목조약사불좌상'도 전시된다.

혜안의 선지식인 만암 스님과 참사람인 서옹 스님을 주제로 근대 백양사의 역사와 고불총림의 의미를 조명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제3전시실에서는 '근대 백양사의 중창과 고불총림'을 주제로 만암 스님 소장 '태극기'와 '서옹 스님의 가사', '참사람 운동 육필 원고' 등 생전 유품이 공개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백양사 본·말사 성보를 재조명하고, 가치 높은 성보를 국보·보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백양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과 나주 죽림사 괘불,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등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전남 북부지역의 불교문화를 대중들에게 선보여 불교와 종단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일반 공개에 앞서 9월 7일 오후 3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포교원장 범해,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봉은사 주지 원명, 상도선원 회주 미산,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특별전에서 펼쳐지는 백양사 성보들을 통해 불자들과 시민들이 천년 넘게 전해져온 우리 민족의 높은 문화 수준과 불교미술의 세계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죽림사 세존 괘불탱


서옹 스님의 가사

사찰 수문장 '사천왕상',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9월 7일 지정예고
화엄사 등 8곳 천왕상 대상



강원도에 현전하는 유일한 사천왕상인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동방지국천왕·남방증장천왕(사진 왼쪽)·서방광목천왕·북방다문천왕(사진 오른쪽).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사찰 입구 천왕문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수문장인 '사천왕상'이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사천왕상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등 17세기에 조성된 사천왕상 8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사천왕상은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등 총 3건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여 건이 전하는데,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조성되다가 이후 불화 등의 형태로 그려졌다. 전란 이후 사찰의 재건과정에서 불교의 부흥이라는 범불교적 역사적 소명을 담아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해당 시기의 사천왕상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과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은 전란 이후 벽암 각성과 계특 대사에 의해 사찰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조성한 것이다. 두 사천왕상 모두 의자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제작된 의좌형 사천왕상이며, 전체적으로 중량감 넘치는 조형 감각, 사각형의 주름진 큰 얼굴, 넓고 두텁게 표현된 콧방울 등은 동일 지역 내 17세기 전반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제작한 조각승 응원과 그 제자 인균으로 이어지는 유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두 사천왕상 모두 발밑에 악귀 등 생령이 없는 게 특징이다.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역시 전란 이후 벽암 각성에 의해 주요 전각이 순차적으로 중창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것이다. 양식적 특징과 나무의 연륜연대분석(나이테연대분석) 결과 등으로 볼 때 17세기 중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현전하는 사천왕상 중 매우 드문 입상이며, 5.7m에 이르는 최대 크기의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조형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으로는 드물게 발원문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1665년 완주 송광사를 근거로 활동하던 단응과 탁밀, 경원, 사원, 법청 등 그의 유파 조각승을 초청해 한 것임이 밝혀졌다.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은 17세기에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목조사천왕상으로, 같은 전남 지역의 화엄사, 흥국사 등의 사천왕상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조각 양식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다.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은 원래 전북 무장 소요산 연기사에서 17세기 후반 제작한 것으로, 연기사가 폐사되면서 설두 선사가 1876년 영광 불갑사로 이안했다. 여러 편의 나무 조각을 접목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동시에 머리카락이나 세부장식, 양감이 필요한 부분은 흙으로 정교하게 제작하여 소조상에서 목조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중 사천왕상에서 나온 복장전적을 사천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당해 목록에서 해제하고 새롭게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및 복장전적'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했다.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강원도에 현전하는 유일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희소하며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 조각사적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사적기를 통해 1676년 승려 여담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17세기 후반 기준작이기도 하다.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동방지국천왕의 내부에 남겨진 묵서를 통해 1683년 조성됐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작품으로, 사천왕상 편년 연구에 기준이 된다. 양식적 특징과 단응 유파가 제작한 영산전(靈山殿) 과거칠불 등을 볼 때 이 사천왕상은 단응 유파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사천왕상은 중요한 조각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 노출돼 보존관리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일괄 지정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미술사연구소 박물관 대학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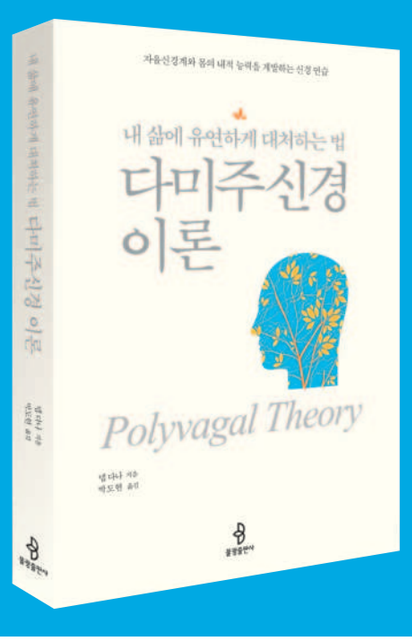
10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제56회 박물관 대학 2학기 강좌를 10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10차례 진행한다. 답사를 제외한 강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길 4(가회동 30-10)에 있는 한국미술사연구소이다. 수강료는 19만 원(학생은 15만 원)이다. (02) 3673-3426 신중일 기자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제4회 공개사례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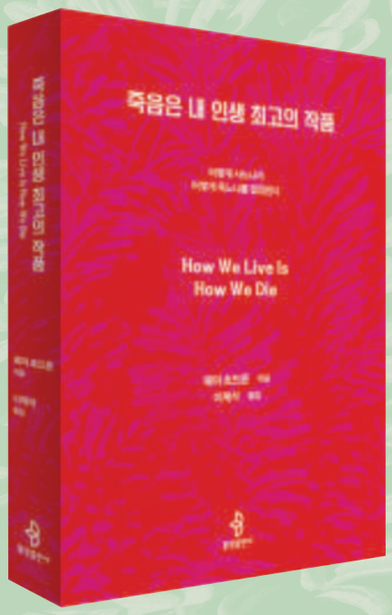
9월 22일 원주 구룡사서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손강숙)는 9월 22일 오후 1시 강원도 원주 구룡사에서 '제4회 공개사례 발표회 및 수퍼비전'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총지사 주지 동진 스님과 오세천 ㈜행복나눔125 경영컨설팅 대표가 상암사례를 발표한다. 수퍼비전과 상담시연은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이 맡는다. 신중일 기자

우리 안에 고통을 이겨내는 타고난 힘이 있다!
내 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놀라운 신경과학,
'다미주신경 이론'의 모든 것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최선의 방식으로 삶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 주는 신경 연습!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신경과학 신경심리학 분야 1위
내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다미주신경 이론
뎁 다나 지음, 박도현 옮김
304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인생의 태도로 죽음의 차이를 만드는 기적 같은 지혜!
죽음은 내 인생 최고의 작품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


페마 초드론 지음 · 이재석 옮김 | 336쪽 | 20,000원
달라이 라마와 함께 영적 스승으로 존경받는 페마 초드론이
티베트불교에서 발견한 삶과 죽음의 찬가(讚歌)이자,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페마 초드론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의 미국인이자 '마음 전문가'
'왓킨스 북'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북미 지역 첫 티베트불교 도량인 감포 사원(Gampo Abbey) 원장

© christine alicino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3 회광반조 1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데바닷다가 떨어진 지옥의 갱도가 있다는 탑을 찾아 나선다.

데바닷다, 석존의 성불을 돕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은 무상사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어 교단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쟈타삿투왕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 자신이 믿었던 왕에게 외면당하자 그는 다시 무상사를 시해하려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때 그가 떨어진 지옥의 갱도가 그 탑 주위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봐야 하겠군요.

송 서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했다.

-그러시구려. 여기까지 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지. 어서 가보시구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 있겠소. 어서 가보시구려.

그때 저 만큼서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청년이 있었다. 아들의 물건을 불사르고 있다더니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모양이었다.

-아니 이걸 다 불에 태웠단 말이에요?

가까이 다가온 아들이 소리쳤다.

-쓰잘머리 없는 것에 정신을 파니 그런 것이 아니냐.

-아버지 이게 뭔지나 알고 그러셔요?

-네놈이 요즘 신경 쓰는 것이 아니냐.

-학교의 숙제물이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악종 데바닷다를 제도하는 경이오. 그 경줄을 스무 번 써오라는 숙제란 말이에요.

-뭐라고?

-악종 데바닷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용서를 받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대목까지 썼는데 이걸 다 태워 버리면 어떡해요?

-무엇이?

-하이고, 저 사람 큰일 났네. 주워들은 풍월은 있어서 그걸 우짖다가 무식이 들통 났으니…. 인간 참 묘해. 아들의 말에 놀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걷고 있던 심 작가가 한마디 했다. 내가 필필 웃었다. 선입관이란 게 무엇일까 싶었다. 우리는 얕은 지식으로 데바닷다라는 인물이 악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를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세월이 지나면서 석존은 추종자들에 의해 그의 진면모가 많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바닷다가 떨어졌다는 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작된 것일 터였다. 언젠가 데바닷다의 기록을 신문에 쓸 일이 있어 들여다보았더니 그는 결코 악인이 아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쇼다라를 두고 석존과 암투하거나 동년배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뒤의 기록을 보면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붓다를 시해하려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법화경〉에 보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의 행적은 눈부시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데바닷다에 대해 붓다는 목이 마를 정도로 그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석존의 성불을 결정적으로 도운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나중 붓다의 경지에 오를 인물이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의 기록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방등무상경〉 〈법화경〉 〈묘법연화경〉 등 여타 경전에서는 그를 붓다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소승경전이 대승경전으로 이행되면서 그 기록들이 뒤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데바닷타를 붓다로 받들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데바닷다를 나무라선 안 된다. 그는 진리의 수호자다. 중생을 구하겠다는 데바닷다의 방편 역시 보살심에서 나온 것이다. 데바닷다는 그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법의 근저에 이르렀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없었지만, 법을 위하는 까닭으로 국왕의 자리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북을 쳐서 명령을 사방에 내려 법을 구하되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설하여 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 마땅히 설하여 주리라고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곧 선인을 따라가서 온갖 시중을 들었느니라. 과실을 따고, 물을 긷고, 땔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심지어 몸으로 자리가 되기도 하였지마는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법을 위하여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천 년이 지나도록 지성으로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데바닷다)이니라. 그 제바달다 선지식이 나로 하여금 6바라밀다와 자비희사(慈悲喜捨), 32가지 거룩한 상과 18가지 잘생긴 모양과 자줏빛 도는 황금색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붙들어 주는 법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신통력과 도력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하였음도,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여러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무량겁이 지난 뒤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천왕(天王)여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한량없는 중생이 아라한과를 얻고 벽지불을 깨달으며, 불가사의한 중생이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오는 세상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제바달다를 이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품지 아니하면, 지옥, 아귀, 축생의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불 앞에 왕생하여,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으리라. 만일 인간세계나 천상에 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낙(樂)을 받고,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석존의 칭찬이 이렇고 보면 과연 그를 악종이라 할 수 있을까? 데바닷다가 전생에 자기 스승이었으며 무량겁이 지난 뒤에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삽화 · 김상규

보석을 찾는 이 1

산을 넘어가자 개천이 나왔다. 개천가에 대가람이 있었다. 가람 안에 미륵보살상이 서 있었다. 금빛이었다. 높이는 1백여 척이나 될 것 같았다. 미륵보살이라면 장차 세상으로 나올 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자 경전에서 본 유마힐(비마라키르티)이 생각났다. 유마는 출가자가 아니었다. 시장바닥을 떠도는 장사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시장바닥에서 얻어낸 대승사상이 무장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붓다의 말씀에만 연연하는 이들을 소승교도라며 힐난을 서슴지 않는 이가 바로 그였다. 미륵보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어느 잡지에서 본 것 같네요. 이 보살상.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네요.

시선을 압도하는 미륵 보살상을 멀거니 쳐다보고 섰는데 심 작가가 말했다.

-이곳이 미륵보살의 거처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내가 기억을 더듬으며 심 작가에게 물었다. 심 작가가 미륵보살상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잡지에 소개가 자세하게 나왔던데 기자가 취재하러 갔을 때 흰 수염이 길고 키가 큰 노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한눈에 봐도 덕이 깊고 도량이 넓어 보이더랍니다.

-무슨 소원을 빌고 있습니까?

아주 큰 석문 앞에서 노인은 무슨 주문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는데 기자가 물었다.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을 구할 미륵불께서 오신다기에 스님이 가르쳐 준 염불을 외우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미륵불께서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벌써 3년째입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요. 내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말입니다.

-부디 오셔서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심 작가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미륵신앙! 미륵불이 정말 왔을까요? 그분에게.

-글쎄요? 그런데 그날 밤 미륵불이 내게 왔더라고요.

-예?

-그런 곳도 있구나 했었는데 낮에 본 미륵 보살상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미륵보살상 말입니다.

-하하하 그분에게 나타나지 않고…. 거참 희한하네요. 그래서요?

-이상해서 그날 잡지를 다시 꺼내 보았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곳 그러니까 이곳이네요. 이곳에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전설?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 미륵보살님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미륵보살은 언제나 서민 곁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하러 다니다 보면 가장 흔히 보는 것이 미륵상이었다. 낮은 산정에도 있고 들판에도 있고 논밭에도 있다. 미래에 올 부처님이기에 언제나 서민의 곁에 있었다. 인간이 사는 세상, 어디라고 다르랴.

심 작가의 말이 이어졌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사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마지막 날이었다고 해요. 미륵보살님이 나타났다고 해요. 온몸이 휘황한 빛으로 둘러싸여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미륵보살님이 그에게 묻더랍니다.

-왜 나를 찾느냐?

-그대가 이 세상을 구할 미륵불입니까?

-그렇다. 나는 내세를 구하라는 수기를 석가모니 붓다로부터 받은 몸이다.

-그대의 몸을 볼 수가 없겠습니까?

-나의 몸을 보려면 먼저 너의 모습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물음에 대답하라. 진정한 내(我)가 누구인가?

미륵불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걸 깨쳤을 때 다시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미륵불은 사라져버렸다.

-나를 알 때 다시 보자? 그거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진리가 입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나란 존재는 남과 상반되는 개념이 분명하지요.

-내게 있어 나(我)는 주체라는 말이군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주체. 바로 내가 있다는 즉 유아(有我). 그것의 반대는 무아(無我)가 될 것이고.

영원히 주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고 덧붙이려다가 그만두었다.

-그것이 범부에게는 대립되어 있다?

심 작가가 되뇌었다.

-주체의 본성을 보는 자(亞實性)에게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리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라고 하는 본질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있다 없다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주체까지도 인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체가 없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인가요?

-글쎄요?

-그렇다면 문제는 나의 본성을 봐야 한다는 말인데…. 〈계속〉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⑰ 선방생활



▶한줄 요약
결제가 선방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수행'이라면, 만행은 세상으로 나가 '중생을 교화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포교'라 하겠다.

"공부는 대중이 시켜준다"

수선안거(修禪安居)의 전통

스님들은 여름 · 겨울의 안거 철이 되면 선방(선원)을 찾아다니며 안거에 든다. 선방에서 참선 정진하는 스님들을 수좌(首座) · 납자(衲子)라 하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선을 닦는다고 하여 선객(禪客)이라고도 부른다.

선객들은 머물고자 하는 사찰에 먼저 허락을 얻게 되는데, 이를 '방부(榜付)들인다', '입방한다'라고 표현한다. 방부는 '용상방(龍象榜)에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고, 입방은 '入榜'과 '入房'이 두루 쓰인다. '入房'은 선방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入榜'은 용상방에 이름이 든다는 말이니, 일관된 의미로 보아 '入榜'이 더 적합하다. 마찬가지로 방부를 '房付'라고도 표기하나 '榜付'가 본래의 뜻이다. 중국 선종 사찰에서는 방부와 같은 말로 '괘탑(掛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괘탑이란 발우가 담긴 걸망을 건다는 말로, 선방에 마련된 각자의 자리에 발우를 걺으로써 대중생활을 위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규모 있는 사찰마다 손님을 안내하는 지객(知客)의 소임을 두는데, 선방에서는 이들이 방부를 받는다. 예전에는 방부를 쉽게 들이지 않고 일종의 통과의례를 거치기도 하였다. 며칠간 대중생활을 하게 해 근기를 시험하거나, 특별한 의식문을 염송케 하는 선방도 있었다고 한다. 안거가 시작되면 본채 스님들은 선방 수좌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양과 뒷바라지에 힘쓰게 된다.

스님들은 같은 뜻을 지닌 출가자들이 모여 함께 수행하는 것을 더 없는 청복(淸福)으로 여겼다. 예로부터 '대중이 공부시켜 준다', '대중은 신장(神將)과도 같아서 그 속에 있기만 해도 정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법한 수행 분위기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수행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1960년대 부산 선암사 선방에 처음 방부를 들였던 한 스님은, 함께 정진하는 수좌들에게서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려는 절실함이 저절로 느껴졌다. 선방 수좌들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용맹심이 났고, 소임을 짤 때 후원 일을 맡아 공양 짓기에 최선을 다했다. 1940년대 후반 출가해 행자로 살던 고봉 스님 또한, 맑은 눈빛으로 단아하게 가부좌를 튼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모습에 신심이 절로 솟았다. 참으로 힘든 시절이었지만 하나같이 눈 푸르게 정진하는 그들을 보면서, '춥고 배고플 때 발심한다'는 말을 두고 두고 절감했다는 것이다.

선방의 규율은 엄하기로 이름 높다. 용맹정진 때는 물론, 평시도 하루 열 시간 남짓 참선에 들다 보면 졸음이 가장 힘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조는 이들을 경책하기 위한 용도로 선방마다 빠짐없이 '장군죽비'를 갖추었다. 장군죽비는 수좌들끼리 순서를 정해 불침번을 서며 서로 경책할 때 사용하거나, 방장 · 조실이 수좌들을 경책할 때 사용했다.

해인총림의 방장이었던 성철 스님은 당시 수시로 선방을 드나들었고, 조는 이의 등줄기를 장군죽비로 호되게 내리치면서 "졸지 말고 밥값 내놔라!" 하고 호통을 쳤다. 선방 스님이 졸면서 참선하지 않는다면 절에서 공짜로 주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꾸짖음이다. 120cm 정도 길이의 장군죽비는 물푸레나무로 만드는데, 낭창낭창하여 유연성이 좋고 때려서 잠은 깨우되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장군죽비는 유난히 잘 부러져, 해인사에서는 결제를 앞두고 일찌감치 목공소에 주문 제작을 맡기고 있다. 안거에 앞서 미리 선원과 강원에 장군죽비를 보내 경책 요령을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방의 소임과 울력

안거 철의 선방은 참선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인 출가수행자 집단이다. 따라서 승가의 일반 대중생활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평등을 기반으로 한 화합과 규율이 중요하였다. 이에 인원이 적든 많든, 모든 대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임을 맡는 것이 선방의 특성이다.

근대 이후 경허 스님에 의해 선원마다 안거 대중의 법명 · 직명 · 연령 · 본사 등을 기록한 방함록(芳啣錄)을 남기기 시작하여, 선원의 전통과 가풍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방함록과 청규(淸規)를 보면, 각자 소임을 맡는 일과 함께 대중 울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경허 스님은 1903년 범어사 계명암 선원을 개설하면서, 17개 소임을 두고 '상하 대중이 모두 울력에 동참' 할 것을 밝혔다. 한암 스님은 1922년에 개설한 건봉사 선원의 청규에 '울력에는 마땅히 나가며, 빠져서 대중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1923년부터 학명 스님이 운영한 내장사 선원에서는 황무지를 개간해 본격적인 반선반농(半禪半農)의 삶을 실천하였다. 하루를 오전학문 · 오후노동 · 야간 좌선으로 나누고, 동안거에는 좌선을 위주로 하며 하안거에는 학문과 노동을 위주로 한 규범을 세워나갔다. 이 외에도 방함록 직명에 농감(農監) · 농막(農幕) 등을 둔 곳이 많아, 선농일치에 근거한 선원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근대 초 울력을 강조하는 '선농일치'의 풍토는 선원에서 비롯되었다. '점심공양 하고 나면 수좌들도 울력 나가기에 바빴다'는 노스님들의 말처럼, 1970~1980년대까지 선방에서도 본채 대중과 함께 움직였다. 후원 소임 또한 원주는 본채 스님이 맡고, 선방에서 공양주 · 채공 · 갱두 등을 돌아가며 맡는 곳도 많았다. '선방 소임은 일주일씩 살고 강원 소임은 3일씩 산다' 하여 기간은 대개 일주일 · 열흘이었고, 노스님과 젊은 스님이 짝을 이루어 음식 전수도 이루어졌다. '선방 수좌가 약단지 갖고 다니는 건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 또한 팽배하여, 어지간히 아파도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고 버티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무렵부터 점차 선방 수좌들이 공양간 소임을 살지 않고, 김장 등 특별한 일 외에는 울력도 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본채에서는 '선방 외호'의 전통에 따라 수좌들이 수행에 전념하도록 울력을 최소화했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울력 많은 선방에는 아예 방부를 들이지 않는 추세가 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급자족에서 벗어난 지 오래일 뿐 아니라, 출가자의 부족으로 후원에 재가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방 수좌들은 정진 · 공양은 물론 취침도 대방에서 함께했지만, 근래에는 개인 승방을 두어 하루 정진 일과를 마치면 각자의 방에서 기거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강원의 학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찰에서 스님마다 방을 따로 쓰는 추세와 함께한다.

노스님들은 '독방 쓰지 마라'는 어른들의 경계를 새기며 살았다. 24시간 함께하는 삶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심신을 가다듬는 큰 힘으로 작용하였고, 선방의 대중생활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대중방에서 기거하는 삶은 경제적 여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기에, 개인공간을 원하는 수행자들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선방에서는 가장 늦게 수용한 셈이다.



좌선하는 스님들과 장군죽비를 들고 졸음을 경계하는 송광사 선방 모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가자들 함께하는 수행은 큰 힘
엄한 선방 규율 이겨낼 동력 돼
선방 대중 모두 소임 맡는 특성
점차 수행 전념 · 울력 최소화 변화



김장을 하는 대흥사 스님들.

선방의 공양문화

예로부터 '선방에 음식문화가 발달했다'는 말이 전한다. 전국에서 모여든 스님들이 소임을 살 때 각자 특색 있는 음식으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이고, 이에 솜씨 좋은 스님이 채공으로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 모두 좋아하였다. 선방 수좌들이 몸을 상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채에서 공양으로 뒷받침하는 문화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같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 때도 조리방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수좌들이 공양간 소임을 보던 시절의 선방은 전국의 사찰음식이 교류하는 거대한 장(場)이기도 하였다. 특별한 날이면 선방과 본채 스님들이 함께 시절 음식을 만들어 먹는 풍습도 곳곳에서 펼쳐졌다. 개울가로 솥을 들고 나가서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제철 채소로 갖가지 전도 구웠다. 특정 작물이 날 때 선방에서 자원하여 특별식을 만들기도 했다. 여름철 아욱이 무성하면 쌀 · 아욱 · 된장에 밀가루 수제비를 떼어 넣은 아욱죽을 끓이고, 상추 대궁이 높게 올라오면 잘라내어 한두 시간 만에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상추김치를 만들었다.

선방의 노스님들 가운데 음식에 해박한 이들이 많아, 스님들은 스스로 '선방은 까다롭고 늘 공양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라 말한다. 때로 음식에 불만을 지니는 수좌도 있게 마련이어서, 1990년대 태안사 선방을 연 청화 스님은 격의 없이 소참법문(小參法門)을 할 때면 '먹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해 송광사에서는 근래 공양 후 들어가는 차담을 공식적으로 없앴다고 한다. 선방에서 인터넷을 찾아가며 청하는 음료수가 자꾸 생기니 함께 마음을 비워나가자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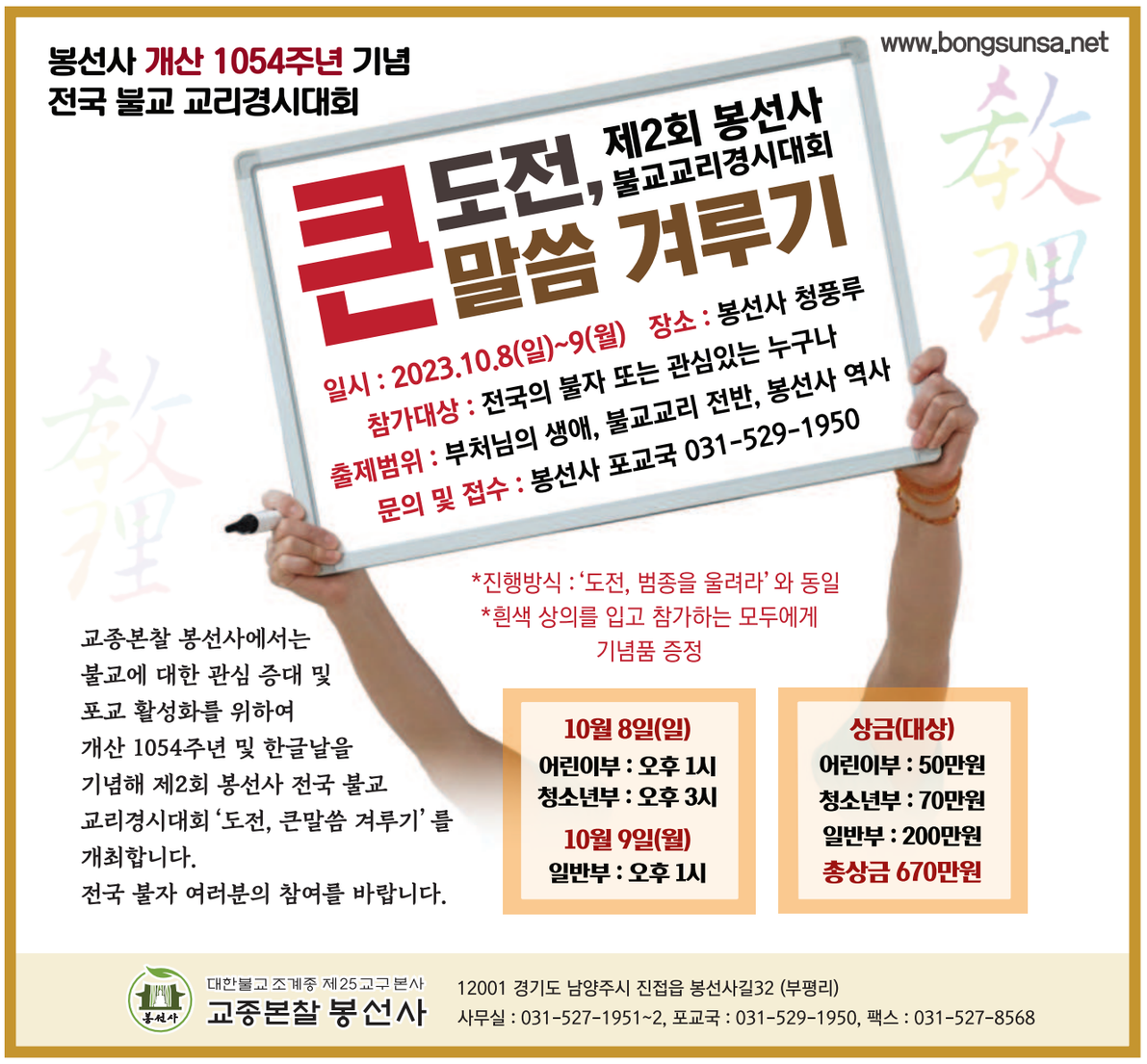
선방에 딸린 지대방은 차를 마시며 다담을 나누는 휴식처였기에 '선방의 지대방은 다방(茶房)'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본채에서 준비한 차뿐만 아니라 수좌들이 각자 대중 공양물로 차를 가져와, 스님들이 즐긴 차는 선방에서 가장 신속하게 정보교류와 품평이 이루어졌다. 등장하는 차의 종류는 시대와 사중 형편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1960~1970년대에는 오미자차 · 구기자차 · 생강차 · 대추차 · 쌍화차 등이 주를 이루었고, 때로 호남지역 스님들이 가져오는 녹차를 맛보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선방마다 보이차 · 우롱차를 비롯해 귀한 차들이 등장하고, 근래에는 커피가 선방의 빠질 수 없는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가 하면 식량문제로 힘든 시절에도 선방 스님들을 뒷바라지하는 본채 스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많았다. 결제 무렵 노스님이 신도 집까지 수십 리 길을 걸어 다니며 선방 대중을 위한 식량과 찬거리를 시주받아 등짐으로 지고 오는가 하면, 쌀밥을 먹이기 위해 먼곳까지 탁발을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기도 했다. 자급자족할 형편이 못 되니 결제 철이면 동냥하다시피 선방을 꾸려나가, 힘든 시절에 선방을 운영하는 작은 절의 주지는 사부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안거를 마친 수행자들은 걸망을 메고 산문을 나서서 각자 만행(萬行)을 떠난다. 결제가 선방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수행'이라면, 만행은 세상으로 나가 '중생을 교화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포교'라 하겠다. 해제 기간인 산철에도 좌선의 고삐를 놓지 않고 안거에 드는 선객들이 있어 이를 '산철결제 · 산중경제'라 부른다. 산철결제 · 산중결제 하는 선방이 드물어 방부를 들이기가 본철보다 힘들다 하니, 선방 스님들의 수행 열기가 참으로 놀랍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⑰ 석굴암의 비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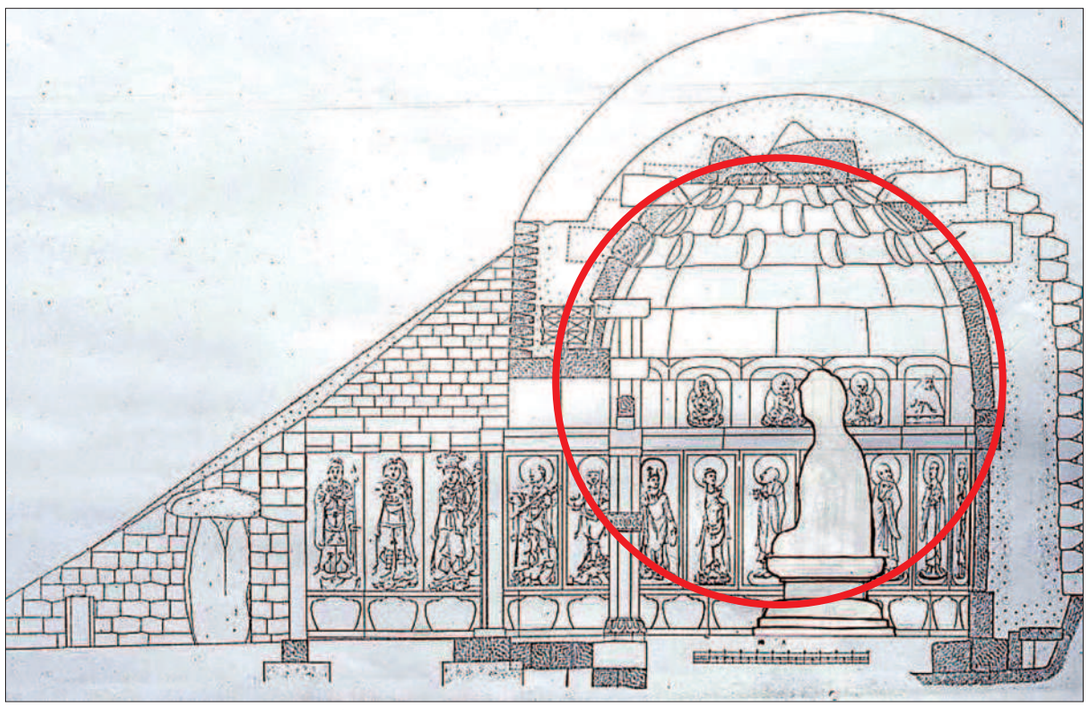
▶한줄 요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한국 대표 유산이다. 그 특징은 '원형'으로 조성된 것으로, 마치 여의주 안에 있는 느낌이 들게 축조됐다.

찬란한 여의주로 깨어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경주 석굴암. 석굴암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석굴암은 어떤 이유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 석굴암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걸까? 그 특징과 상징을 알아보도록 하자.



도판① 석굴암의 원형 법당과 천정의 모습.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한국 대표 불교문화유산이다.



도판② 석굴암의 도면. 거대한 여의주의 형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에 따라 참배객은 여의주 안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

영원불변 '돌'이라는 소재

먼저 석굴암은 건물이 전체가 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동해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경주 토함산의 사뭇 높은 위치에 건축됐다. 사찰 건물은 통상적으로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으로 만들어진 사각 형태의 건물이다. 그런데 석굴암은 화강암이라는 경도가 높은 돌을 깎아 만든 판테온이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 중앙아시아의 돈황 석굴, 중국의 운강 및 용문 석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굴 군(群)에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는 석굴암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석굴암을 보고는, 자신들의 것에 비하면 "코딱지 만하다"며 비웃기도 한다. 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기막힌 아름다움에 숨이 죽는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세계의 여타 석굴과 석굴암이 다른 점은 돌로 전체를 축조하였다는 점이다. 돈황, 운강, 용문 등의 석굴 군은 모두 산의 단면을 '파내어서' 만든 것이고, 석굴암은 100% 돌로 '축조'를 했다는 것이다.

높은 산에 돌을 깎아 기초를 다지고, 기둥과 벽면을 세우고, 천정 역시 돔의 형태로 만들고 내부의 조각(부조와 환조)도 모두 그 단단한 화강암을 석공의 손으로 깨고 깎고 다듬어 만들었다. 돌을 사용해 전체를 장엄했다는 것은 애초의 조형적 의도와 발상에서부터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나무와 흙 보다 더욱 영구적인 소재를 통해, 영원불변한 진리의 모습(또는 공간)을 이곳 불국토에 창조하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서려있다.

둥근 '원형'의 사찰 공간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석굴암의 구조가 '원형(圓形)'이라는 것이다. 석굴암의 입구인 전실(前室)은 장방형의 사각형으로 이 공간은 불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호법신의 공간이다. 그래서 전실에는 팔부중과 금강역사가 배치됐고, 이어지는 복도인 비도(扉道)에는 사천왕이 배치됐다. 팔부중, 금강역사, 사천왕 그리고 비도와 본 법당인 원실(圓室)이 맞물리는 곳의 제석천과 범천까지 조각돼, 내로라하는 호법신들이 총 출동하여 입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본체 건물에 해당하는 원실은 360° 로 둥글게 벽면을 세워 바닥이 동그란 원형 구조이며, 그 위의 천정 역시 둥근 궁륭 형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초창기 신전처럼 돔(Dome)의 형식을 띄고 있다. 궁륭 또는 돔의 형식이란 반구형(半球形) 모양의 둥근 천정을 가르킨다.

그런데 돔 형식의 둥근 천정을,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무겁고 단단한 화강암으로만 끼워 맞추어 만들어낸다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참고로 석굴암에 들어간 돌의 개수는 총 108개이고 사용된 모든 돌들은 못이나 접착제 등 이음 재료 없이 순수하게 돌로만 짜맞춰 축조된 것이다. 돌의 개수인 108은 108번뇌를 상징하고, 이는 딱 108개의 번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번뇌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즉, 뭇 번뇌를 모두 깨달음의 진리로 타파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다시 석굴암 천정 시공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둥글게 이것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의 고충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삼국유사〉의 글을 보도록 하자.

> **장차 석불石佛을 조각하고 큰 돌 하나를 다듬어 감개(龕蓋)를 만드는데, 돌이 갑자기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 (김대성이) 분하게 여기다가 어렴풋이 졸았는데 밤중에 천신이 강림하여 그것을 완성하여 놓고 돌아갔다. 김대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신이 사라진) 남쪽 산봉우리로 급히 달려가 향나무를 태워 천신에게 공양했다. 그래서 그 산봉우리 이름을 향령(香嶺)이라 했다.**
>
> –〈삼국유사〉 '효선 제9: 대성 효2세부모 신문왕대' 중에서

사찰을 건 둥근 '감개' 시공

삼국유사 속 석굴암 관련 내용을 보면, 석굴암 완성의 마지막 단계가 '감개'를 덮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감(龕)'이란 불상을 모시는 장 또는 궤를 말하고, '개(蓋)'는 이것을 덮는 덮개를 말한다. 감개를 덮는 것을 화룡점정으로 약 27년에 걸친 석굴암은 드디어 완성을 보게 되는데, 이를 눈앞에 두고 감개가 세 조각 나버리니, 김대성은 망연자실한다. 하지만, 그 분함을 삭히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궁리의 궁리를 거듭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다. 이러한 김대성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 천신이 내려와 이것을 천정 한 가운데에 붙여놓고 갔다는 이야기이다. 즉, 그만큼 둥근 돔 형식의 천정을 완공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말이다. 석굴암의 감개는 거대한 둥근 연꽃 모양의 돌로(도판① 참조), 실제로 이러한 기록의 내용처럼, 세 조각 난 돌들이 이어 붙여진 모습으로 현재 천정의 한 가운데를 장식하고 있다.

> **세계유산인 석굴암, 韓 대표 문화유산**
> **석굴암 돌 개수 108개…'원형' 짜맞춰**
> **둥근 천정 · 본실, 전체 조감하도록 해**
> **마치 여의주 안에 있는 느낌 들게 조성**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냥 여느 사찰의 통상적 모습처럼 네모 낳게 방형으로 구획을 하고 세모 낳게 기와지붕을 올리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둥근 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었냐는 것이다. 그것도 평지도 아닌 높디높은 토함산 중턱에, 무겁디무거운 돌로 말이다. '토함산 중턱에 동해 바다, 특히 감포가 내려다보이는 곳'이라는 석굴암의 특정적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원형'이라는 건축적 특징의 비밀을 살펴보자.

석굴암 건축이 원형인 이유

이상, '원형의 법당과 원형의 천정'이라는 석굴암의 핵심적 특징을 관찰하였다. 그렇다면 석굴암이 원형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당 한 가운데의 본존불 〈석가모니성도상〉은 당당한 양감(量感)으로 충만하다. 신성한 에너지로 넘치는 듯하다. 본존불 머리 바로 뒤 벽면의 작은 연꽃은본존불을 정면에서 올려다보았을 때, 두상과 겹치면서 두광(頭光)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하였을 때, 원형의 법당 자체가 본존불의 입체적인 광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도판①) 광배란 '깨달음의 빛'을 조형화한 것이다. 본존불의 머리 위, 천정의 연꽃 감개 주변으로는 판돌을 가로 세로 엇갈리게 배치해, 마치 찬란한 빛줄기가 둥글게 퍼져나가듯 입체적인 연출을 했다. 본존상을 참배하노라면, 항마촉지인의 검지를 구심점으로 시작해, 카메라가 조각상 주변을 한 번 빙글 돌아 위로 올라가듯 시점이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저절로 전체를 조감하듯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여의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둥근 천정과 둥근 본실의 공간 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묘한 효과이다. 결국 거대한 여의주의 형상을 체감하게 되는데, 그 공간은 적적성성(寂寂惺惺)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초대형 '여의주'의 깨달음

이렇게 거대한 '여의주'의 공간을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유는 '궁극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도상은 '여의주'이기 때문이다. 궁극의 깨달음을 법신(法身) · 만유본체 · 진여(眞如) · 본각(本覺) · 일심(一心) · 참나 · 성품자리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는데, 이것의 이미지는 여의주에 비유된다. 그래서 다양한 예불문에는 '깨달음의 표상'으로서의 '여의주'에 대한 언급을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천수경〉의 '준제진언'에는 "우차여의주(又此如意珠)/ 정획무등등(定獲無等等)"라고 하여 "이 여의주를 만난 이는/ 반드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고 언급되었고, 의상대사의 '법성게'에는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라고 하여 "둥글고 오묘한 법, 궁극적 진리의 모습이여/ 고요할 뿐 동작 없는 삼라만상의 바탕이여"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궁극적 깨달음의 모습은 둥근 여의주로 비유되는데, 이를 〈무량수경〉과 〈화엄경〉 등대표적 대승경전에서는 '여의주의 왕'인 '마니보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아직도 어깨와 허리힘으로 광택을 내시나요
광택은 쉽고 빠른 이지 골드로!!
이지골드 광택제는 닦기가 쉽고 광택이 오래 유지됩니다!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은, 동
놋쇠(방짜), 신주, 자동차 알미륨휠, 스테인레스, 모든 금속류
스텐, 알루미늄, 청, 법랑, 타일 등의
산화물 세척의 원조!!
ST-100V
에스티-백 브이
남자 소변기 요석제거에 탁월합니다!!
사용전
사용후
5분간격으로 3번 뿌리고 닦은 후 물로 세척하면 소변기 요석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영 일 상 사 010-5462-3620
영일상사 1호점 010-3495-5579
네이버 쇼핑
영일상사 1호점 검색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이안의 Media In Buddha 23 영화 〈오마주〉



▶한줄 요약
신수원 감독의 영화 〈오마주〉는 한국 영화사에서 최초의 여성 시나리오 작가이자 두 번째 여성 영화감독이었던 홍은원을 영화적으로 재현한 홍재원의 필름을 여성 감독 지완이 복원에 참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삶은 꿈, 꿈에서 깨는 게 깨달음"

불교를 일컬어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으며, 한 사람의 깨달음이 번져 나가 모든 중생의 깨달음이 되리라 믿고 제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달음' 이란 무엇일까? 종종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가 살아가는 구체적 모습, 그러니까 선지식의 행적과 선문답에서 깨달음을 찾곤 한다. 그런데 기록으로 남아 있거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야기로 전해지는 선지식의 모습은 지금과 말도, 풍습도, 문화도, 상식도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살아가던 시대의 깨달음을 지금 시대에 그대로 재현한다고 해서 바로 '한 사람의 깨달음' 을 보고 배워 '만 사람의 깨달음' 이 될 리가 없다.

온전히 선지식의 깨달음을 마주 하려면 그때의 시공간과 맥락을 지금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대중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자니 해제가 붙고, 설명이 붙고, 각주가 붙고, 그래도 어려우면 이런저런 말도 붙고, 그러다가 원래의 깨달음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신수원 감독의 〈오마주〉가 딱 이런 영화다.

예술에서 다른 작가나 감독의 대사나 장면 등을 인용하면서 원본이나 출처를 지우는 것이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은 나쁜 것이고 범죄다. 반대로 일부러 원본이 있는 작품을 끌어와서 장면이나 출처를 꼭 알리면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영화적 표현으로 '오마주' 라고 한다. 프랑스어인 오마주는 '감사, 경의, 존경' 을 뜻하는 말로서, 작가로서의 감독이 자신의 영화 안에 자신이 존경했던 영화감독에 대한 각별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 특정한 장면을 모방해서 관객도 원본을 알아차리도록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말하자면 선지식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감독 자신의 깨달음을 관객에게 전하는 방식이랄까?



영화 〈오마주〉의 한 장면.

신수원 감독은 2011년 MBC 창사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여자만세〉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영화를 만드는 여성들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에서 신수원 감독은 자신의 첫 영화인 〈레인보우〉(2010)에 출연했던 여성 로커에게 카메라를 잡게 해서 셀프 영상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일반인이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기도 하며, 카메라를 통해 여성이 만들어내는 깨달음의 순간들을 차곡차곡 탐사해 나간다. 그러다가 신수원 감독은 한국영화 역사상 두 번째 여성감독이었던 故홍은원 감독이라는 존재를 찾게 된다. 홍은원 감독이 살았던 집에서 유품들을 통해 여성영화인으로서의 흔적을 더듬어 가다가 실제로 홍은원 감독의 영화를 편집했던 여성인 김영희 편집기사를 만나는 인연으로까지 나아간다.

〈여자만세〉 전까지는 한국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과 〈미망인〉은 알려졌지만 홍은원 감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감독의 존재 증명인 영화가 필름으로 남아있지 않았으니 홍은원이 감독이었다는 어떤 실체도 없었던 것이다. 신수원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자취를 찾았다. 당시 필름을 밀짚모자 챙으로 만들어 쓰거나 녹여서 레코드판으로 썼다는 얘길 듣고서 〈여자만세〉 안에 모자에 필름으로 챙 두르는 대한뉴스 장면을 구해서 넣는 것으로 프린트가 부재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지극해서였을까? 2015년 한 영화업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해왔던 필름들을 영상자료원에 기증했는데 그 필름 더미에서 기적처럼 홍은원 감독의 작품인 〈여판사〉를 찾게 되었다. 그렇지만 온전히 영화 전체가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는 망실된 상태였다. 그리고 여기서 〈오마주〉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오마주〉의 주인공은 직장 다니는 남편도 있고 청년인 아들도 있어서 날이면 날마다 남자 사람들의 밥 타령에 볶이는 중년여성 지완(이정은)이다. 지완은 딱 신수원 감독 자신과 나이대도 비슷하고, 옷태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영화감독인데, 작품에 대한 열정에 비해 흥행과는 거리가 먼 탓에 즐거울 수 없는 상태로 갱년기를 겪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서 극장에 걸린 영화에는 관객이 자신과 프로듀서뿐이고, 새 시나리오는 잘 안 풀리는데 심지어 잘 알던 맞춤법까지 헛갈리고, 줄곧 함께 작업해왔던 프로듀서는 이제 영화를 그만 두겠다고 하고, 아들은 엄마 영화는 재미없다고 하고, 남편은 밥 타령만 하니 사는 낙 찾을 길 없는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작업 의뢰가 들어온다.

> **매번 흥행 실패하는 女감독 지완 남편, 아들에게 밥타령 듣는 신세 60년대 여성감독 필름 복원 참여 여성 불모지 영화계서 노력했던 족적을 좇으며 자기 자신 성찰해**

한국영상자료원에게 '시간되면 아르바이트 해볼래' 라며 요청 받은 작업은 크게 표 나는 일도 아니고, 1960년대 여성 감독의 영화에 사운드를 복원하는 일이다. 그 작품은 '홍재원' 감독의 〈여판사〉,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여자만세〉에서 발견하게 된 '홍은원' 감독의 영화적 변형인 인물이다. 그리고 영화 속 복원해야 할 영화인 〈여판사〉는 실제로 홍은원 감독의 16mm 필름 작품을 영상자료원에서 파일로 틀어 촬영한 영상이다. 이 장면에 대해 신수원 감독은 "필름이 손상된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뭉클했다. 홍은원 감독님의 영혼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복원이라는 건 영화를, 그 영화인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오마주〉의 주인공 지완은 말로는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툴툴대지만 행동으로는 품 많이 들고 돈도 적은 일에 열심이고 진심이다. 어둑한 밤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각또각 구두소리에 모자 쓴 멋쟁이 여성의 그림자도 마주치고, 집 근처 주차장에는 이웃 여자가 자살했다는 자동차를 마주치고, 복원해야 하는 영화 〈여판사〉 안에서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여성 최초로 판사가 되었으나 남편 일가로부터 일과 전업주부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는 여성 판사 진숙을 마주친다. 그 마주침 사이에는 복원해야할 인물, 찾아야 할 서사가 있다.

1962년 작품인 〈여판사〉는 한국 최초의 여판사로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황윤석 판사의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개봉 당시 여성 감독이 실제 여성이 겪은 사건을 자살로 극화한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라고 한다. 그런 화제작이 사운드도 필름도 온전하지 않게 21세기에 들어서서야 발굴된 것 자체가 신수원 감독에게는 선지식을 마주치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 그 기이한 경험은 영화 〈오마주〉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여성 감독과 여성 영화인들을 현재의 맥락 안으로 환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영화인들이 드나들던 충무로 옛날 다방에서 기억을 더듬는 사람을 만나고, 그이가 간직한 사진과 전화번호를 찾게 되고, 거기서 마침내 사진 속 홍 감독과 늘 어울렸던 영화 동료인 편집 기사를 찾게 되는 과정은 너무도 영화적이지만 사실은 〈여성만세〉 안에서 실제로 겪었던 현실 자체다.

시골에 살고 있는 편집 기사를 찾아갔을 때, 허리 굽고 다리 불편한 그 할머니의 주름살 안에서 한때 충무로에서 가장 세련되고 진취적인 여성 영화인이었던 편집기사 옥희(이주실, 실제 인물은 김영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사라진 필름부터 찾아야 한다. 멀티플렉스 디지털 상영이 대세인 상황에서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극장을 찾고, 그 극장에서 필름을 뒤지다 모자챙에 장식으로 둘러진 조각들을 찾고, 그 조각난 필름들을 이어서 씻고 말리는 과정은 그 자체로 영화라는 장치가 가진 물질성을 드러내고, 그 물질성은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숨결을 실체로 되살리는 마법의 소환술과도 같다.

컴퓨터 파일 안에 담긴 영상에 가상 효과인 VFX로 배경이며 등장인물까지 물질성 없이 영화를 만드는 오늘날의 제작 방식 이전에 필름이라는 광학 매체에 빛과 물질의 작용으로 이야기와 인물을 담아낸 기록 안에는 시간과 장소의 흔적까지 얼룩져 담겨있다.

한국 영화사에서 최초의 여성 시나리오 작가이자 두 번째 여성 영화감독이었던 홍은원은 여성 영화인이 거의 없었던 1950~60년대 영화현장에서 스크립터에서 시작해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영화음악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한 여성 영화인이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50도 못되어 태양을 맴도는 위성같은 존재로 떨어졌다' 고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고, 신수원 감독이 〈여자만세〉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전까지는 잊혀 졌고, 마침내 〈오마주〉에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선지식으로 또각또각 걸어온다.

지완의 아들이 "엄마, 영화 하지 마.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꿈꾸는 여자랑 살면 외로워 진 데. 엄만 엄마 꿈만 중요해"라고 대들더라도 "자넨 끝까지 살아남아"라며 조각났던 필름을 예전 방식으로 이어 붙여 다시금 영화로 되살려낸 옥희의 격려는 영화 속 지완, 영화를 만든 신수원,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 살아난 홍은원, 영화 속 영화 안에서 시대와 맞서는 여판사 진숙을 이으며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전한다. 여성 영화인으로 산다는 것, 그 생생한 현실을 돌파하는 예술과 인간의 경지를. 영화 복원을 마친 지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더 이상 그림자는 두렵지 않고, 자살했을까 걱정했던 이웃집 여자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마도 영화는 계속될 것이다.

성철 스님이 이르시기를 '삶은 꿈이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영화는 꿈이다. 그리고 삶을 담은 영화를 보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오마주〉는 바로 그런 꿈, 그런 삶, 그런 영화다.

〈영화평론가〉





보살도 구하려면 '사종율의' 청정해야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㉞ 사종율의

〈원문〉

"아난아, 네가 마음을 거두는 섭심(攝心)을 물어 내가 먼저 말해 주었다. 삼마지에 들어가 닦아 배울 묘문을 설하였으니 보살도를 구하려거든 먼저 사종율의를 지녀 깨끗하기가 얼음과 서리 같이 하면, 스스로 능히 일체 지엽이 생겨나지 못할 것이며, 마음의 셋과 입의 넷이 생길 원인이 없으리라.

아난아, 이와 같은 네 가지 일을 유실치 아니하면 마음으로 오히려 색(色)·향(香)·미(味)·촉(觸)도 반연하지 아니하리니 일체 마군의 일이 어떻게 생기리요. 만약에 숙습이 있어서 능히 소멸해 제거하지 못하거든 네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불정광명마하실달다반달라무상 신주를 외우게 하라. 이것은 정수리를 볼 수 없는 무위심 부처님이 정수리 위로부터 빛을 발하고 보배 연꽃에 앉아 설한 심주니라."

〈강설〉

〈능엄경〉 7권에는 이른바 능엄신주(楞嚴神呪)라고 하는 주문이 설해져 있다. 대승 경전의 여러 주문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주문으로 알려진 것이다. 불정다라니(佛頂陀羅尼)라고도 하는 이 주(呪)는 총 427구로 되어 있다. 이 주문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큰 영험이 있다고 여겨져 널리 염송되었다. 모든 부처님이 이 주문의 근본을 깨달아 마군(魔軍)을 항복받고 부처가 되며 이 주문을 근거로 하여 중생을 제도한다고 경에서는 밝히고 있다. 예로부터 중국 선종에서도 이 주문을 널리 염송해 왔다. 당나라 때 백장 선사에 의해 지어진 백장청규(百丈淸規)에서도 이 주문을 외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참회가 이루어지며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8천 번만 외워도 번뇌가 없어진 무상정(無想定)에 들어가며 죄업이 소멸되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청평거사 이자현에 의해 능엄선(楞嚴禪)이 행해지면서 이 주문도 염송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설사 주문을 암기해 외우지 못할 경우에는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안의 벽에 써 붙여두기만 하여도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 주문의 효험과 공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다. 일설에는 이 주문이 최초로 암송되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때 북종(北宗) 신수(神秀) 대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선린상기전(禪林象器箋)〉에 나오는 말이다.

〈능엄경〉이 관정부(灌頂部)에 속한 밀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이므로 능엄주가 설해진 7권의 주심묘용(呪心妙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427구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 "다나타 옴 아나레 비사제 비라바저라 아리반다 비타니 바저라바니바 옴 도로옹박 사바하 옴 비로제 사바하"이다. 이를 지극한 마음으로 외는 것이 용맹정진이 되며 삼마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또 법화참법(法華懺法)처럼 능엄참법(楞嚴懺法)이 있는데 주(呪)를 통해 참회를 하여 온갖 악귀 및 질병 등의 재난을 여의고 가피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또 능엄단(楞嚴壇)을 설치하여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나 오시(午時)에 능엄주를 독송하는 풍습도 있었다.

경의 본 대목에서는 부처님이 능엄신주를 소개하며 아난에게 숙세의 나쁜 습기(宿習)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우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보살도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사종율의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종율의란 살생(殺生), 투도(偸盜), 음행(淫行), 망어(妄語)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신(身), 구(口), 의(意)의 삼업(三業)을 깨끗이 하여 십악(十惡)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의 셋은 탐(貪), 진(瞋), 치(痴)이고 입의 넷은 악구(惡口), 망어(妄語), 양어(兩語), 기어(綺語)이다. 이는 모두 삼학(三學)의 계학(戒學)이다. 계학이 갖춰져야 정학(定學)인 삼마지가 이루어지며 삼마지가 이루어져야 혜학(慧學)인 일체지(一切智)가 이루어진다는 불교의 근본 대의를 밝혀 놓은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자기 생멸심이 제도의 대상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㉞ 선정바라밀

적멸처를 정의 주체로 삼은 것을 대적정(大寂定)에 들었다고 말한다. 대적정의 상태에서는 진여심과 생멸심이 완전하게 분리된다.

이 상태에서 몸의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8선정으로 한 단계 내려와야 한다. 8선정의 선정 바라밀은 비상비비상처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7선정의 과정에서 25원통수행을 통해 9선정으로 직접 들어간 경우에는 아라한과를 먼저 증득하고 나서 나중에 8선정을 이룬다. 8선정은 아나함과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몸에서 세워진 열두 개의 기점과 본성, 각성,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장부순화, 뼈순화, 신경순화, 세포순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8선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발성 수행법과 기공법, 뇌척수로 운동법과 삼관법, 삼해탈법과 막관법이 전체적으로 활용된다. 제도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초선정에서 8선정까지의 과지법이 단계적으로 활용된다.

8선정의 과정에서는 삼관법 중에서 삼마발제의 관법이 중점적으로 쓰인다. 삼마발제를 가관(假觀)이라 한다. 환(幻)이며 참이 아닌 것을 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조물은 환(幻)의 소산이다. 생멸심도 환(幻)의 소산이다. 환(幻)의 소산인 거짓된 가(假)를 제도해서 생명의 가치를 증장시키고 불공여래장을 이루는 기틀로 삼는 것이 8선정을 행하는 목적이다. 8선정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자기 제도는 장부순화이다. 중심 기점이 활용된다. 표면적 유위각이 쓰인다. 두 번째 자기 제도는 척추뼈 순화이다. 명문, 중심, 영대, 중극, 황정 기점이 활용된다. 미세적 유위각이 쓰인다. 세 번째 자기 제도는 갈비뼈 순화이다.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명문 기점이 활용된다. 미세적 유위각이 쓰여진다. 네 번째 자기 제도는 꼬리뼈 순화이다.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회음, 명문 기점이 활용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다섯 번째 자기 제도는 욕정의 제도이다.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회음, 명문 기점이 활용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여섯 번째 자기 제도는 말초신경 순화이다. 백회, 중황, 중극, 황정, 회음, 옥침, 영대, 명문 기점이 활용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일곱 번째 자기 제도는 머리뼈 순화이다. 백회, 중황, 미심, 옥침,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명문, 회음 기점이 쓰인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여덟 번째 자기 제도는 육근청정이다. 식의 바탕으로 눈, 귀, 코, 입, 몸, 생각 경로를 제도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아홉 번째 자기 제도는 중추신경 순화이다. 백회, 중황, 미심, 옥침,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명문, 회음 기점이 활용되고 43개의 뇌척수 분절이 활용된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열 번째 자기 제도는 세포 순화이다. 백회, 중황, 미심, 옥침, 중심, 영대, 중극, 황정, 하단전, 명문, 회음 기점이 활용되고 뇌척수로 운동법과 살갗관법, 근막관법, 뼈막관법, 골수막관법이 활용된다. 본연적 무위각이 쓰인다. 진여수행의 선정바라밀은 보살도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고 등각도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다.

보살도 과정에서는 진여식의 상태와 제도의 대상에 따라서 열 단계의 선정바라밀이 행해지고 등각도 과정에서는 두 단계의 선정 바라밀이 행해진다. 보살도 초지에서는 무념·무심·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간극의 적멸처에 머물러서 밝은성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해탈지견식과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2지에서도 무념·무심·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간극과 밝은성품에 몰입해 있던 각성을 생멸심으로 전이시켜서 진여심과 생멸심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㉞ '왜'라는 질문

망심을 진심으로, 번뇌를 보리로

세상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물음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동시에 그 질문자가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말하는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우선 질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그 잘못된 질문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도 알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모든 마음을 담기 때문에 그 질문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존재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우게 된다. 우리가 존재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이해도 아니고, 세상을 이해하는 척도를 통해서도 아니다. 그 질문하는 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질문하는 자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면 아무리 존재성에 대해 듣게 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대해 알기 전, 우리의 질문자가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만약 외부적인 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면 그는 영원히 외부적인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자기애에 빠져 외부적인 것을 왜곡시켜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신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만약 식(識)을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망심이 진심이 되며 번뇌가 보리로 변해 해탈의 경계를 알 수 있네. 해탈의 경계는 결코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이로부터 마땅히 알 수 있듯이 소위 변제(邊際)가 없다는 것은 결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네."

질문의 '왜?'는 자신의 현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자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범위가 전체의 의미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한 질문의 목적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시험일 것이다. 질문의 목적은 '나를 한번 이해시켜 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재주로. 나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잘 이해시키는지에 따라 당신을 판단하겠어.'라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어찌 그와 진실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기에 내가 모르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타당할 텐데 대부분은 이렇게 묻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로 바로 대답할 것이다. '사실 나도 아는 것이 없다. 당신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다는 것이 문제이지, 완전히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모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것만 완전히 동의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어지럽게 사량분별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부분 이것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으로 삐죽하고 사량분별하는 마음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여야 할 것은 알려는 그 마음과 안다는 그 생각을 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그 망심을 진심으로 만들게 되고 번뇌를 보리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론가 구하고 향해버린 이들은 찾아야 하는 조급한 마음과 알아야 하는 다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핵심을 항상 놓치게 된다. 분별이 망심이고 변하는 것을 고정하려는 마음이 번뇌인 줄 모르고, 진심과 보리가 달리 있는 줄 알고 찾게 된다. 진심과 보리는 따로 없다. 분별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바로 진심이 되고,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알아서 잡는 것도 없고 놓는 것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가 된다. 이러한 진심과 보리를 알았다고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달리 해탈을 향해 배를 띄워 향해하지 않는 즐거움을 향유하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51호 | 17 | 전면광고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은 괴로움만 줄 뿐, 즐거움을 모르나니 슬기로운 이는 먼저 욕심을 버리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100평
- 건평 : 약40평 외
- 주차가능 • 매가 : 3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굴 땅 안내

- 괴산 토지 500평, 평당 25만원
- 이면도로 2차선도로적
- 가까이 호수같은 큰 저수지 있음
- 주변 경관이 조용하며 토굴짓기에 좋음

010-4876-10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4547-00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태화강 부근 2층, 법당포함 35평
- 도시가스사용
- 보증금 1천, 월세 43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7942-901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동 진 불 사

-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소재
- 부 지 : 1000평 (종교용지)
- 법 당 : 40평 (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3개동 150평 (수행실 17개소)
- 기 타 : 산신각, 연못, 석등
- 가 액 : 22억 5천만원
- 특 징 : 제주시내에 위치한 대가람으로 종단의 수련원, 선방, 복지원 용도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국 소재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010-4927-0455 / 010-5122-8080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809
- 대지 411평
- 건물 1, 2층 (68평 정도)
- 금액 : 5억 9천 9백
- 암자, 토굴, 전원주택, 펜션, 사찰가능
- 바다조망

010-3000-5359

양평 토굴 안내

- 문중땅 700평
- 사용: 년 30만원, 매매 9800만원
- 집 앞에 계곡이 흐르고 뒤편은 산이며 주차는 7~8대
- 주변 경관이 아름다우며 조용한 곳입니다.

010-4876-1058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 836번지 약 300평
- 4년 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절터, 산소자리 적합
- 가액 : 3,150만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 대지 : 1,299㎡(393)
- 건물 : 법당– 약 15평, 요사채– 약 35평, 창고–약 4평
- 스님 세수가 많아 회양준비중임
- 시내 아주 좋음(주차장, 도로사정좋음)
- 꼭 하실분, 부동산 사절
- 금액 : 3억 7천만원

010-9800-7575

포교(법당)당 전월세

- 위치: 부산시 진구 성지로 151 3층 (실평수 70평)
- 대법당외 요사채 방2칸
- 현신도수 4300명 (전산등록)
- 가액: 3천만원 월 150만원 부가세별도
- **비품대없음**
- 어린이대공원역 버스정류소 바로 옆 건물.
- 엘리베이터있음 (냉난방 완비)

010-3398-6204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시 상대원동
- 법당 1층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5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사정상 임대합니다

010-5369-415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010-2366-2821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제주시 구좌읍
- 대지 800평, 전 1220평, 법당 조립식 25평, 요사채 콘크리트벽조 38평, 주지실 콘크리트벽조 25평
- 잔디마당, 정원수 조경 최상 3년된 신축 건물
- 신공항예정지 17분거리
- 가액 : 28억 • 오후 2시이후 통화가능

010-3693-532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2억 5천만원

010-8411-1217

사 찰 안 내

- 청주사찰건물
- 청주시청앞 건물 9층 건물대지 147평, 건평, 1100평
- 1층: 로비사무실, 2층: 연잎한정식, 3층: 생광석찜질방, 4층: 식당, 5층: 임대, 6층: 임대, 7층: 사찰대웅전, 8층: 임대, 9층: 아파트 70평
- 매매가 25억 대출 15억임대
- 스님들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싸게드립니다.

010-5883-2255
010-8569-6643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 건평 68평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포교원 (급) 매매

- 위치: 공주 봉황동 건물매매
- 건물 53평, 주방1, 방2, 독방1
- 토지임대 월5만원
- 가액 : 3천 5백만원

010-4428-7300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 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51호 | 18 | 전면광고

오근(눈, 귀, 코, 혀, 몸)을 제어하여, 그것이 방일해서 오욕(빛,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마치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단속해서, 소로 하여금 날뛰어 남의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원주 비구니스님

- 영험한 도량
- 가정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소액으로 조상분들 천도해 드립니다.
- 재비는 50만원, 부처님 가피로 자손분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몸이 신병으로 아프신 분, 퇴마 빙의 사주 보실분도 오세요

010-9392-1189

공양주 구함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 구함

스님들과 같이 함께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069-9131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암, 간질, 공황장애, 음주, 우울증치료, 조현병, 정신질환 치유가 90% 이상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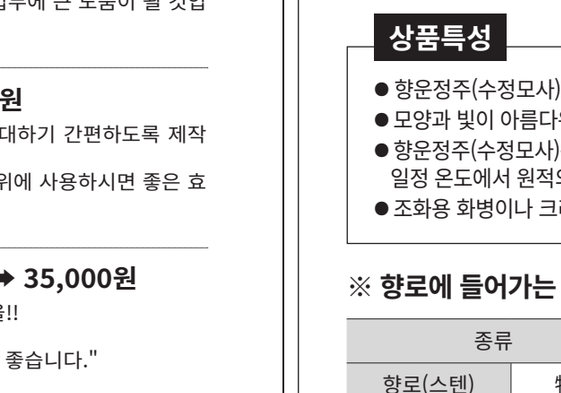
- 친견비 330만원
- 천도비 1억부터 시작
- 모든 사고사 예방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⑯ 성불(成佛)



부처 될 수 있게 애쓰라는 말

우리는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요? 성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작불(作佛), 성도(成道), 득도(得道)라고도 하며 깨달아서 번뇌로부터 벗어나 부처가 되는 것 등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이루신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고통이 없는 편안한 정신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나와 진리가 일치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육체와 정신을 일치시키고 나와 진리가 일치되는 원래의 성품을 찾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처럼 고통 없는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일시적 무지에 덮여있기 때문에 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산사를 찾아가는 마음. 부처님 품에 안겨있는 마음. 산사를 내려와 우리들 일상의 모습과 행동. 이 모두가 일치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모습, 행동, 말투 이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 법 전하는 일 일 것입니다. "성불하세요"라는 이 말은 진짜 부처님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평소 애쓰라는 말이 아닐까요.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⑲ 박몽구의 '운주사 와불 곁에서'

내 곁의 아픈 가슴 먼저 돌보기

운주사 와불 곁에서 / 박몽구

얼마나 겨드랑이가 간지러웠으면
천년 동안이나 저렇듯 미소를 지우지 않고 지내왔을까
지금이라도 다복솔에 붙어서 우는
매미의 날개를 얻어서
승천을 거들고 싶다

날개가 돋다 만 자리를 자꾸 만지는 나그네에게
운주사 와불은 빙긋 미소만 지어 보일 뿐
하늘로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녀
멀리만 보지 말고
내 곁의 아픈 가슴에게
꽃향기 한 올이라도 건네봐
미소를 지을 뿐
등을 보이지 않는다

겨드랑이 사이로 어린 나그네는
돋다 만 날개를 찾아다니고……

– 박몽구 시집, 〈개리 카를 들으며〉, 문학동네, 2001

시를 읽고 나니 내 겨드랑이에도 날개가 돋은 듯 간지럽다. 간지러움은 첫 행부터 시작된다. "얼마나 겨드랑이가 간지러웠으면/ 천년 동안이나 저렇듯 미소를 지우지 않고 지내왔을까" 읽기만 해도 와불의 간지러움이 전달돼 키득키득 웃음이 나온다. 양쪽 겨드랑이에서 무엇이 스멀스멀 솟아나온 듯 온몸으로 웃음이 퍼지며 간지럽다.

하지만 시인에게 그 간지러움은 그냥 간지러움이 아니다. 매우 역동적인 간지러움이다. 시인 자신이 "지금이라도 다복솔에 붙어서 우는/ 매미의 날개를 얻어서/ (와불의) 승천을 거들고 싶"은 간지러움이다. 시인은 천년이 넘는 세월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며 미소만 짓고 있는 와불(臥佛)의 모습에서 승천하지 못한 부처님(혹은 중생들)의 마음을 읽은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다복솔에 붙어서 우는/ 매미의 날개를 얻어서(라도)/ (와불들의) 승천을 거들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또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임을 이내 깨닫는다. 시인은 곧바로 2연에서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가당찮은 인간의 욕심 자리인지를 알게 된다. "날개가 돋다 만 자리를 자꾸 만지는 나그네"가 되어 와불의 승천을 돕고 싶지만, "운주사 와불은 빙긋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인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가당찮고 세속적이었던가를 조용히 알아차린다. 다복솔의 매미 날개를 얻어서라도 자신의 승천을 돕고 싶어하는 시인에게 운주사 와불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녀"라고 점잖게 타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멀리만 보지 말고"(이상만 쫓지 말고), 지금 당장 "내 곁의 아픈 가슴에게/ 꽃향기 한 올이라도 건네봐"라고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가르침을 준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실 이것이다. 이상만을 쫓아 허허로운 삶을 살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중생)들을 위해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라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와불이 추구하는 세상이고 우리 중생들이 추구해야 할 현세의 삶인 것이다. 수많은 시인들이 운주사를 찾고 운주사 중에서도 와불을 찾아 시를 읊고 노래한 것도 바로 와불에 숨어 있는 그러한 뜻 때문이다.

그렇건만 박몽구 시인은 그것을 다 알아차렸으면서도 마지막 3연에서까지 겨드랑이의 간지러움-승천의 욕구를 버리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겨드랑이 사이로" "돋다 만 날개를 찾고 다니는" "어린 나그네"로 묘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시어가 등장한다. 바로 "어린 나그네"의 "어린"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날개가 돋다 만 자리를 자꾸 만지는 나그네"였고, "지금이라도 다복솔에 붙어서 우는/ 매미의 날개를 얻어서/ 승천을 거들고 싶"은 "나그네"였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녀/ 멀리만 보지 말고/ 내 곁의 아픈 가슴에게/ 꽃향기 한 올이라도 건네"보라고 일러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나그네"는 "어린" 나그네로 변한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어린"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린' 도 되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녀/ 멀리만 보지 말고/ 내 곁의 아픈 가슴에게/ 꽃향기 한 올이라도 건네"보라고 와불의 미소 법문을 들었지만, 아직도 승천의 꿈-욕구-탐진치를 다 버리지 못한, 그래서 아직도 "돋다 만 날개를 찾아다니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뜻하고 있기도 하다. 이 시가 명작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처럼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화순군 천불산 기슭에 위치한 운주사는 와불 외에도 천불천탑으로 유명하다. 천 개의 부처님과 천 개의 탑이 와불을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정우 작가는 운주사를 '실패한 자들의 임시 망명정부' 라 했고, 장길산의 저자 황석영은 "세상의 모든 천민이여 모여라. 모여서 천불천탑을 세우자"라며 새 세상을 향한 민중의 염원을 운주사에 담았다. 또 시인 임동확은 〈몸체가 달아난 불두에〉라는 시에서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한 열망들이 드디어 찾아낸 스스로들의 유배지"라며, 운주사를 역시 "임시 망명정부"라고 칭했다. 필자도 젊은 날 격정의 한때 〈설국(雪國)〉이라는 시에서 "내가 선 자리에도 연등(燃燈) 같은 별빛이 쏟아져 내리고 눈 나라 사람이 된 천불천탑(千佛千塔)들 잠든 와불(臥佛)을 깨워 새 세상 새천년을 일으키고 있었네"라고 썼다.

이 감상을 쓰는 내내 겨드랑이가 근질거렸다. 지금도 겨드랑이에서 매미 날개가 돋고 있는 것 같아 간지럽다. 간지러운 것 하나로 박몽구 시인은 와불의 미소를 영원한 미소로 바꿔 놓았다.

비유 내용은 다르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이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파헤친 말이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녀/ 멀리만 보지 말고/ 내 곁의 아픈 가슴에게/ 꽃향기 한 올이라도 건네"보라는 와불의 미소 법문에는 견줄 바가 못 된다. 승천은 저 먼 어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비희사의 마음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고향의
아내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미얀마 이주민 아우룽 툰씨, 소뇌 내출혈로 생명 위협
가까스로 살아났지만…병원 빚 2000만원에 고향 못가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에 답이 있다 ❻ 마음챙김 명상〈끝〉

▶ 한줄 요약
마음챙김 명상은 주의가 흔들린다거나 공상을 하고 있거나 감각, 생각 또는 감정이 변화되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관찰의 대상이 된다.

마음챙김, 행복한 세계로 가는 수행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초기불교의 마음수행 전통에서 유래한 명상수련법의 하나이다. 이 마음수련법은 미얀마 등지의 동남아시아에서 위빠사나 수행이란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지만 오늘날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만성질환 치료와 스트레스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 감소(Mind 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MBSR)'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하여 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쌓은 매사추세츠대학 의료원의 존 카밧진(Jon Kabat-Zinn) 박사는 마음챙김을 '현재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체험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없이,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상관없이, 오직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그 경험을 살펴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지금(今), 여기에서(處),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대해 깨어 있는 마음(心)으로 바라보는 것(觀)'이다. 마음챙김 명상수련은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세계로 가는 수행이다. 이 수행법은 알아차림, 통찰, 직관과 같은 지혜를 기르며, 평정심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과 자애·자비심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마음챙김 수련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구별한다. 공식적 수련이라 함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고 미리 계획된 표준적인 수행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몸 살피기, 정좌명상, 하타요가와 같은 것을 말한다.

한편 비공식적 수련은 호흡할 때나 걸어갈 때, 남과 대화할 때 또는 무엇을 먹을 때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특정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챙김하여 알아차림 해나가는 명상을 말한다. 수련자들은 그들의 주의가 공상이나 과거의 기억 또는 미래의 계획에 자동적으로 빠져들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 한 후, 지금 행하고 있는 대상 쪽으로 주의를 되돌려 알아차림 하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예컨대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신체의 어느 부위로부터 어떤 감각이 느껴지거나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알아차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 변화해가고, 또 사라져가는 것을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나타나는 그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수련자들은 관찰된 현상들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바라보며,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관찰한 경험에 대해 어떤 평가나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것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 해서도 안 된다. 오직 감각, 그리고 생각이 자연스레 나타나 변화되다가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마음챙김 명상은 주의를 어떤 특정한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호흡명상이나 만트라 명상과 같은 집중명상과는 다르다. 마음챙김 명상은 주의가 흔들린다거나 공상을 하고 있거나 감각, 생각 또는 감정이 변화되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관찰의 대상이 된다.

마음챙김 명상에서도 마음집중에 바탕을 두는 집중명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수행자는 호흡과 관련시켜 횡경막의 상하운동과 같은 특정한 호흡운동에 주의의 초점을 둔다거나, 주의가 흔들려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바로 호흡감각으로 주의의 초점을 되돌리는 집중명상을 닻으로 삼아 점차 마음챙김으로 확산해나간다.

다시 말해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각, 감정, 욕망, 생각, 기억, 환상들의 출현과 변화 그리고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수행자는 명상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상대적 가치나 중요성으로 분별하여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순수하게 알아차림 하는 것을 '순수한 주의(bare attention)' 또는 '선택하지 않는 알아차림(choiceless awarenes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기불교서 유래한 명상수련법
만성질환·스트레스 감소 위해
현대사회 'MBSR'로 많이 활용
분별 없는 알아차림에만 집중

건포도먹기 훈련

이 책에서 소개할 마음챙김 명상법은 필자가 환자나 다양한 부류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온 '한국형 마음챙김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건포도먹기 훈련은 처음 MBSR에 참가한 수행자들이 자기소개를 끝낸 첫 회차에 시작하는 마음챙김 명상의 첫 번째 훈련이다. 수련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너 알의 건포도 알을 나누어 주고 그 건포도 알들을 과거에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처럼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수련자에게 건포도 알을 손가락으로 만져 촉감을 느끼게 하고, 건포도 알의 표면을 살펴보게 하고, 불빛에 비춰 불빛이 건포도 알을 통과하는지도 살펴보게 하고, 귀 가까이 가져가 빠르게 또는 느리게 비빌 때 소리가 들리는지도 알아보게 하고, 냄새를 맡아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알아보게 한다. 그런 후 천천히 입속에 넣었을 때 침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침이 나와 고이는지 등을 살핀 후 서서히 씹었을 때 입과 혀의 반응, 맛과 질감 등을 살피고, 삼켰을 때 목구멍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느낌까지 다섯 종류의 감각적 경험들을 차근차근 살피도록 한다.

만약 이러한 감각 훈련을 하는 동안 감각 경험과 관련 없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판단하지 않은 채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림 한 후 건포도 쪽으로 주의를 되돌리도록 한다.

평소 정신없이 해왔던 일상의 활동에 대해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체험의 질을 높여 삶을 대하는 데 있어 의미를 새롭게 해준다. 이처럼 일상적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 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고 해왔던 일들을 의도적으로 마음챙겨 할 수 있게 된다.

몸살피기 훈련

몸살피기 훈련은 공식적 마음챙김 명상수련의 첫 번째 훈련이다. 수련자들에게 눈을 감은 채 등을 바닥에 대고 가만히 눕거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라고 지시한다. 이어서 왼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상체 쪽으로 주의의 대상을 옮겨가면서 차례차례로 신체 여러 부위들의 감각을 살피라고 지시한다. 왼쪽 다리에 대한 감각 살피기가 끝나면 오른쪽 다리로 옮기고 이어 몸통, 팔, 어깨, 목, 얼굴, 머리 쪽으로 서서히 대상을 옮겨가면서 신체 각 부위의 감각을 살펴보도록 한다.

개개 신체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 어떤 변화도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진 채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신체의 감각을 나타나는 대로 살펴본다. 만약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직 감각이 없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된다.

이렇게 몸을 살피는 동안 마음이 흔들려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가 방황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 한 후 지금 관찰 대상인 신체 부위 쪽으로 조용히 되돌아오도록 할 뿐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이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몸살피기가 끝난 직후 주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금 체험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다. 예컨대 어떤 수련자들은 자신이 몸살피기를 제대로 했는지 걱정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몸살피기에서는 이완과 같은 어떤 특정한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몸살피기 끝에 이완에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는 따위의 결과를 성급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긴장되는 것만 관찰했다고 보고해도 무방하다.

자비·자애명상

행복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저변에는 남을 사랑하고 또한 남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삶 속에 느껴지는 행복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에서 오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이란 삶이 자유롭고, 넉넉하고,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데서 온다.

자비로운 마음 또한 길러질 수 있다. 마음속으로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을 갖도록 마음챙김해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애명상은 친절한 마음이나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말이나 구절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훈련이다. 이 명상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친절함과 다정함을 스스로 우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말들을 담아내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애명상을 하고, 나아가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들, 더 나아가 밉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도록 할 수 있다.

자애명상은 공식 명상으로 할 수도 있고, 비공식 명상으로 할 수도 있다. 공식 명상으로 할 경우는 10~2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한다.

〈장현갑 지음 / 담앤북스 펴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가족사진
본방송 (금) 12:00
재방송 (금) 20:30, (토) 16:00



불법(佛法)유턴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토) 19:30



최광식 교수가 알려주는 삼국유사와 불교문화
본방송 (목) 12:00
재방송 (목) 22:30, (토) 08:30



죽음에서 배우는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일) 22:50



아름다운 사람들
본방송 (수) 09:30
재방송 (수) 21:30, (금) 15: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본방송 (목) 09:30
재방송 (목) 21:30, (화) 15:3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믿고 놓는 데는 아무 이유가 붙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천차만별의 사생이 다 그렇죠. 어떠한 곤충이라도 그렇고, 날아다니는 짐승도 그렇고, 물에서 노는 생물도 그렇고 일체 생물이 다 그렇듯이 고통스러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동물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과거는 현실에 나오고 현실에 살아가는 건 미래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선원에 다닌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공부하는 데에 따라서 그 업보가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팔자 운명이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 거기에 농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을 했지만 되풀이하는 말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하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지었으면 뜸을 들여서 다 먹고 치우듯이, 오늘도 아마 회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선법에는 기도 첫날이 따로 없고 회향 날이 따로 없어요. 항상 기도를 하되 관하는 걸로 가고 있죠. 기도는 항상 바깥으로 상대성이 있는 거고 관하는 것은 안으로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고, 굳건히 믿고,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을 진실히 믿으면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삶에 의해서 벌어지고 오므라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모두 자기가 끌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건데 육신을 가진 나는 모두가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거든요. '내가'라는 거는 없습니다. 나라는 거는 없어요. 왜 나라는 게 없을까?

항상 얘기해 드리죠. 속도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면 불바퀴가 돌아가고 작게 생각하면 우리 살림살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자신으로서 수없는 공한 도리에 의해서 찰나에 바뀌면서 찰나에 또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가곤 있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되풀이를 자꾸 하느냐. 여러분은 겨냥을 잘못 대고 겨냥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 내가 항상 말하죠, 이판사판이라고. 이 이판이라는 것도 사판이라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 인해서 생긴 거죠.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을 나로 인해서 들이고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육신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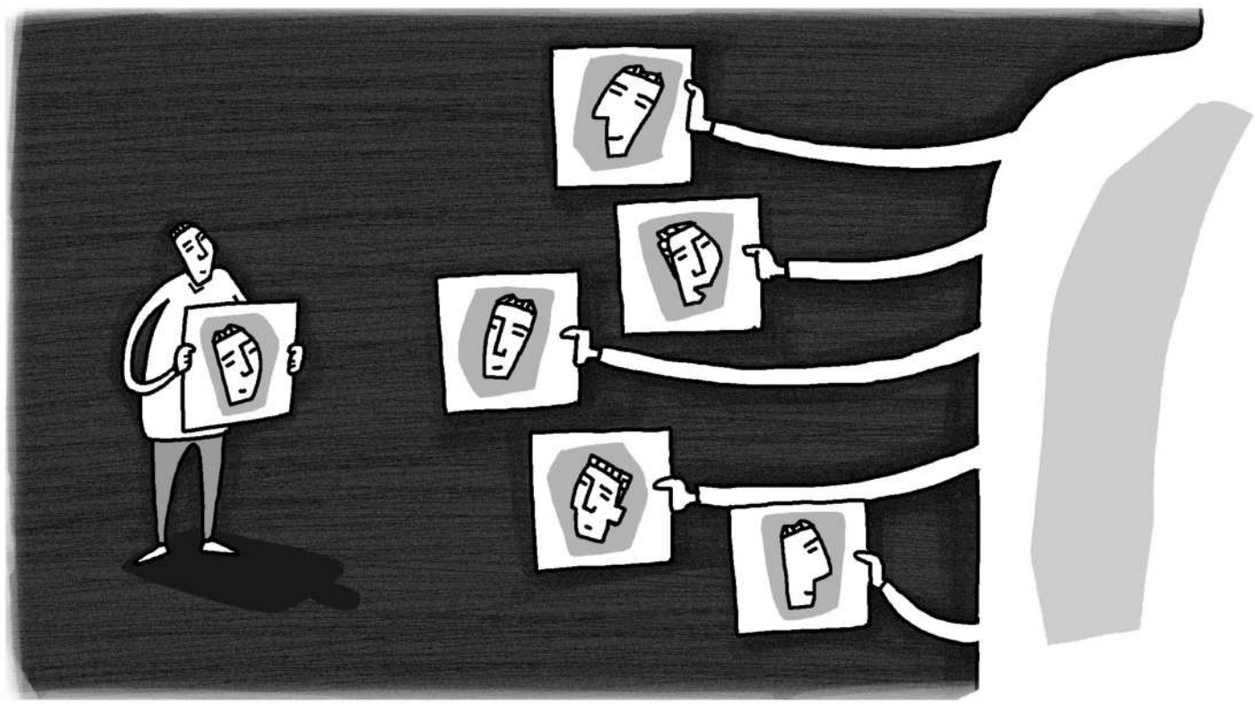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공한 자체에, 즉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배낭에다가 다 넣고 그 배낭에서 자꾸 나오는 걸 볼 때 몸뚱이는 배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서 악업 선업이 돼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을 아예 개의치 않고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아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이게 아주 입에 젖고 뇌리에 젖어서 그것을 놓질 못해요. 왜 놓질 못하는가.

이 '한마음' 하면 그 주인에서 악업이나 선업이 다 한데 합쳐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합쳐져서 생산을 만드는 그 자체에 의해서 주인공이거든요. 하나 들어오면 하나 또 들어오고, 보는 데도 하나뿐만 아니고 듣는 것도 하나뿐만 아니고 가고 오는 것도 하나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저 순식간에 돌아가고 순식간에 돌아가고 이러는 동시에 그것을, 첫째는 하나로 뭉쳐서 놓고 '여기서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구나, 내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되 용도에 따라서 딱 하나가 닥칠 때, '아! 거기서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항상 믿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가, 용도가 딱 들어올 때 거기다 맡겨 놓고서는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 해.' 하는 것이 즉 관이다 이거야. 그리고 지켜보는 거.

그럴 때에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는데 그 생각은 왜 드느냐. 벌써 믿는 게 미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여기다 맡겨 놓는 믿음보다는 '이게 얼른 됐으면' 하는 욕구가 더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으로 맞아 들어갈 수가 없죠. 맞아 들어가는 자체는 바로 지혜 물바퀴도 되지마는, 법바퀴와 불바퀴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돌아가거든. 그런데 거기에다가 놓기만 하면 녹아 없어지는가 하면 타 버리고, 타 버리는가 하면 녹즙기에서 찌꺼기는 나가고 물이 나오듯이, 생수가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법인데, 여기에 맡겨 놓고 믿는 힘보다 내가 욕망이 크고 욕구가 더 많고 그게 더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닿지를 못해. 닿지를 못하니까 녹즙기에 갈려서 나올 리가 없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인공에 놨느니 뭐, 어쩌느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미거한 점이 여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또다시 거푸 얘기하는데, 즉 말하자면 내가 아프다거나 뭐, 일이 벌어졌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재난이 들었다거나, 자식으로 인해서라든가, 이러한 문제 등등을 놓고 볼 때에 그것이 먼저 급하지, 급한 생각이 먼저 들지 여기에다가 이판사판으로 믿고 확 그냥 놓지를 못해. 거기는, 믿고 놓는 데는 아무것도 붙지 않아. 이유가 붙지 않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맡겨 놓기도 전에 벌써 그 생각부터 나. 이거 다가온 것부터 생각하니까 그 욕구가 딱 가리는 거야. 딱 가려서 거기에 닿지 못하니까 갈려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딱 닿지 못하니까 타 버릴 수가 없지. 인과가 타 버릴 수가 없다고. 과거의 인과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그냥 거기에 매달리고 욕구가 더 크고….

내가 어떤 때는 "아, 당신 맘대로지 누가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하고 말하는데, 냉정한 것 같지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는 그 마음도 다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생각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병원으로 가겠다, 이리로 오겠다 이러는 것도 자기 안이 구체적으로 완벽해야 그게 스스로 자기가 택하는 일이지, 완벽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누가 이러란다 저러란다 해도 그것은 거기에 닿지 않는 일이라.

그러니 어차피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나온 사람들이 한 철 지내다가 한 철 나게 되면 갈 것인데 내 영혼을 구제를 받고, '영혼' 하면 내 몸뚱이 속의 모든 인연에 따라서 모두 한데 합친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을 다스리는 내 마음과 더불어 구제받고, 모든 세세생생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고(苦)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인이 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에 이 몸뚱이 있을 때 이 도리를 모른다면 세세생생에 또 끄달립니다.

그러니 어차피 그렇게 나왔다가 갈 것을…, 이 사대는 원점으로 도로 가고 그 마음 나기 이전과 마음은 결국 이 세상에 거추장스럽게 또 나올 거냐? 금이 돼서 나올 거냐, 깡통이 돼서 나올 거냐. 이런 데에 수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답답한 것은요, '참 이상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관리인인데 왜 이것저것…, 모든 여러분은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 관리에, 자손이 있다면 자손 관리에, 모든 가정의 관리인으로서 내가 관리하는, 내 몸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런데 관리인이 왜 그렇게 그 주인을 비켜 놓고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하는지 난 모르겠어. 잘못된 거 있으면 주인이 잘되게 할 거고 주인이 다 할 건데 왜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괜히 나서서 아등바등 아등바등하면서 온통 난리를 지기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죠? 이판사판으로 믿는다면,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을 믿는다면 육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나는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죽지 말아야 한다는 그 착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든 자식이든 착을 두지 말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착을 두게 되면 오히려 가던 발목을 쥐고서, 옷자락을 쥐고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 못하게 매 놓는 형국이거든. 전구는 많지만 전력이 다 똑같듯 내가 컴컴하면 자식들도 컴컴해지는 거예요. 내가 밝아야 자식도 밝게 되죠. 한방에서 살면서 내가 불을 켜면 다 같이 밝게 살 수 있을 텐데

☞ 22면으로 계속



이판사판으로 믿는다면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 21면에서 계속

내가 불을 켤 줄 모른다면 다 같이 컴컴하게 살 수 밖엔 없죠.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믿고, 믿는 것도 그래요. 내 주인공을 믿는다면 그 주인공과 둘이 아니게 가설이 돼 있거든. 자식이다 부모다 부부다 하는 가설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주인공에 탁 맡기고, 둥글려서 맡기고 있으면 어디 갔다 안 들어온들 걱정이 되나?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지. 그렇게 믿어야 될 텐데 벌써 "어디 갔다 왔느냐. 여태 뭘 하고 있었느냐." 진짜 사랑을 한다면 난 그러고 싶어요. 사랑을 진짜 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으려고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받아지질 않아요.

그러니 남편이든 자식이든 또는 부인이든 모두가 그저 마음 편안하게 믿어 준다면 아무 데를 가도, 또 그 남편이나 자식은 자기 어머니를 믿고 자기 아내를 믿고 이럭하고선 태평하게,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하니까 순수하게 무슨 일이든 잘되겠죠. 그런데 안에서 바둥거리면 바깥에서도 허둥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둥지둥 허둥지둥하다 보면 일은 일대로 못 하고, 일은 일대로 잡쳐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둥거리니까 점점 더 달아나가게 되고, 이게 아주 몹쓸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 깊이 좀 잘 들어야 돼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이렇게 했더래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주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에다가 자식조차 또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거야.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거나, 학교는 나간다는데도 며칠씩 안 들어오고 기껏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들어오면 뭘 하느냐. 안 들어오는 게 낫지." 이러고는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있다 하는 소리가 "남편 덕 없는 놈이 자식 덕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저 모두 나가서 빌어먹든지 깡통을 차든지, 나가서 그냥 다리 옹두라지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허술히 그냥 말을 뱉은 것이 정말 그 이튿날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남편은 유치장에 가 있고 그렇더라는 거지. 그러니 누구 속을 썩이는 거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썩는 거라.

차라리 그냥이나 뒀더라면, 차라리 모든 것을 그저 그냥 믿고 여기다 맡기면 가설이 돼 있어서 거기까지 밝아져서 오히려 "엄마!" 하고 들어오고 "아유, 왜 내가 술만 먹으면 당신한테 이래?" 하고 뉘우칠 수 있는 것을, 그런 길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뱉어 버리는 그것이 독이란 말야, 독. 아주 극치적으로 속이 상할 때는 독이 나오거든. 가설이 된 그 줄에 독이 가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전부 가설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이면서 이건 생활이다 이거야.

그러니 어차피 나왔다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 걸 서로 모여서, 즉 말하자면 놀러 한 철 나왔다가 만난 인연들인데 진짜 사랑하고 그러려면, 진짜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을 해 준다면 가설된 대로 점점 다 밝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는, 한 번 밝아져 두 번 밝아져 세 번 밝아져 그러다 보면 그 부인이 생각한 대로 '아, 내가….' 하고 자기는 회개를 하는 거야.

또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는 '내가 그렇게 망종같이 해도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시고 어머니는 부드럽게 해 주시고, 어머니는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그러지 말고 속으로도 밉지 않게 그냥 내맡겨라. 너도 한 철 놀러 나왔고 나도 한 철 놀러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담의 말로 자식이다 부부지간이다 하는 것도 자기 소관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거야. 다 같이 놀러 나온 거야. 놀러 나왔다가 맺어진 인연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서 여자를 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게 그렇게들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따뜻하게 말해 주고 따뜻하게 행을 해 준다면 항상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돼 있고, 물은 항상 골짜기에서 깊은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마음을 신성하게 갖고, 오늘부터라도 신성하게 갖고 '사랑을 한다, 사랑을 안 한다'를 떠나서 내 마음속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붙들고 울지언정 '서로 만난 인연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니 속을 안 썩이게 당신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울더라도 울어라.

거기다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소용이 없어. 오히려 달아나가. 자꾸 달아나가. 이건 마음의 놀이기 때문이야, 마음 놀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가지 긁으려면 내가 오히려 물에 빠져서 퍼덕거리게 되는 이치가 많거든. 내가 빠지지 않고는 남을 물에 넣을 수가 없거든. 내가 속이 부릉부릉 끓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말을 하느냐 이거야. 말을 하게 되면 내 속이 더 썩지.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지, 그쪽 망가지지. 다 망가지게 돼 있어.

진짜 사랑을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식도 어렸을 때 고분고분히 엄마 말을 듣고 이럭할 때, 그 조그마했을 때 그때뿐이지 거기서 조금 머리가 커지면 벌써 그걸 각오해야 돼.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 같이 놀러 나왔던 인연들이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거. 내가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고 그러는데, 나가서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 공부 공부 공부…" 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차 타고 오다가 보니까, 세 살 먹은 애도 차에 치일까 봐 쏜살같이 달아나가더라고. 세 살 먹은 아이도 저 살 궁리를 하는데 어째서 모두들 저 살 궁리 안 하겠느냐 이거야. 빤한데, 벌써.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공부 공부 공부" 하다 보니까 이건 자기를 생각할 여유가 없고, 자기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여유를 주질 않아. 그러고도 귓전에 자꾸 들어오니까 지겨운 생각이 들어가. 자기가 개선해서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어야 능률이 나는 거지 남이 "해라, 해라" 해서 하는 것은 능률도 안 생겨.

그리고 모든 점에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좀 더 능동적인 지혜로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나 말 자세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내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신은 내 거니까 내가 꼭 필요한 존재고 내가 꼭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면서 놀러 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마음으로다가 그냥 딱 묶어서 항아리 속에다 딱 넣어 놓고 이렇게 한다면 넣어 놓은 사람도 그걸 지키느라고 꼼짝 못 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도 꼼짝 못 하고, 이거는 산 지옥이지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소?

그러니까 좀 넓게, 그렇다고 해서 다 괭개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거기다가…. 이 가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 안에서 어디 가질 못해요. 전부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저 널리 울을 쳐 놓고, 지금 있는 게 이 지구 아니겠소.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지 못하죠. 지금 울타리를 널리 쳐 놓고선 그 안에서들 지금 사는데 그 안에서나마 좀 활력성 있게, 좀 마음이 좁지 않게, 지혜로이 나가게끔 자꾸 개선해 주는 게, 어머니나 부인이나 또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이게 서로 똑같이 해야 할 일이라.

여러 말을 해도, 우리가 근본적인 이 도리를 모르면 여러 말 해 줘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것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 이 세상 이치는 전부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고정됨이 없다. 그러니까 공했다. 그러니까 찰나찰나 바뀌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바뀌지면서 돌아가는 생활을 바로 누가 하는가? 자기 안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이걸 끌고 다니는 그 주인이, 바로 마음 내는 주인이 끌고 다닌다. 그러면 그 마음 내는 자체가 바로 그 몸속에 든 영혼들을 전부 한마음으로 몰아서 다스리는 거거든.

사람은 모두 모르지만 이 속에서요, 팔자 운명이라는 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 몸속에 다 있어요. 팔자 운명 뭐,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이게 다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들어 있다고 하느냐.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로써 몸뚱이는 받지만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영혼들이 전부 자기한테 인과로 뭉쳐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지금, 몸뚱이 속에서 우굴우굴 우굴우굴하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저지르려면 남을 시켜 가지고 남한테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한테 부딪치게 만들고, 또 자식한테 들어서 자식한테 부딪쳐서 싸우게 만들고 부부지간도 역시 그렇게 만들고 재난이 드는 것도 역시 그렇고 병고가 생기는 것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의학술로는 35%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아, 요것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요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요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그저 모조리, 모조리 거기서 나온 거라고 거기 맡겨 놓고선 돌아갈 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야, 죽든지 살든지.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고달픈 거를 평화스럽게 해 주는 것도 너. 모든 것이 거기니까. 모두 한군데 맡겨 놓는 작업만 열심히 하면 그뿐이지 내가 잘되겠다 못되겠다 왜 참섭을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거기 갖다 맡겨 놓으면 거기서 주인이….

이 몸속에 있는 영혼들도 전부 한데 합쳐져서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뭉쳐지니까 살고 흩어지니까 죽는다는 얘기야. 이 마음들도, 의식들도 뭉쳐져야, 이 한마음, 다스리는 마음을 따라 줘야 전부 몸도 건강하지.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하지, 몸이 건강하니까 돌아가면서 내 가정도 건강해진다 이거야. 첫째, 속 안 썩으니 건강하지. 또 파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고칠 수밖에 없다.' 하고 믿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은 없거든.

그 묘법을 그렇게 두고도 항상 믿지 못해서 아등바등…. 여기서 듣고 나가면 그냥그냥 흘려버리고는, 실오락지 같은 게 어디까지 가다가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말아 버려. 이 세상의 팔자 운명 그런 것들을 전부 한데 합쳐서 이 주머니 속에 모두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것 주머니 속에다 되넣는다면 앞서 것은 없어진다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난 요새 말도 하기 싫고…. 한 날 저 바람 불고 나뭇잎 나부끼고, 피었다 시들고 시들었다 피고 물 흘러 돌고, 세상이 그렇듯이, 또 세상이 그런가 하면 우주 자체가 그렇고, 그렇게 돌아가고…,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는데 말이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그만하면 족하다는 셈으로 아, 좀 그렇게 살면 좀 어떻소! 아니, 그렇게 복작거리고 그렇게 해서야 어디 사람 살맛이 나겠소? 내일 아침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요새 같은 세상에 먹게 하는 것도 너, 굶기는 것도 너, 아, 그렇다면 입히는 것도 너, 못 입히는 것도 너, 집에서 못 살게 내쫓게 하는 것도 너, 집에서 살게 하는 것도 너, 모두 너라면 그렇게 아둥바둥할 것이 뭐 있소?

머슴을 사는데 말이오, 머슴을 사는데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주인이 시장 봐다 주면 그저 그대로 반찬 해서 먹고, 또 안 사다 주면 안 사다 주는 대로 하고 "가서 해 오너라" 그러면 해 오고, "저거 가서 보고 오너라" 하면 보고 지키고,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럴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소? 뭐 그렇게 그 습이, 그냥 '나'라는 습에서 영 떠나지를 못하시니…. (녹음 안됨)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9월 10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그만하면 족하다는 셈으로
좀 그렇게 살면 어떻소.
아니, 그렇게 복작거리고 해서야 어디 살맛이 나겠소?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현불논단 |

‘이념의 함정’서 빠져나오려면…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공산주의 행적 이유…이념론 대두
劍 같은 이데올로기, 두 얼굴 지녀
정치적 수사 매몰시 이념 노예 전락

韓정치 지성 취약성 극명히 보여줘
연기론, 중도 철학이 필요한 시대
‘연기적 시민의식’ 함양, 불교 책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관한 논쟁을 보면서 처연한 기분이 가슴에 저린다. 처연함은 아픔이 서린 슬픔이다.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보면 ‘시대와 나라를 잘못 만나서 큰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어린 시절부터 머슴 생활로 시작해 의병과 독립운동으로 ‘고려 독립’의 서원을 세우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강제로 이주당한 동토의 땅 ‘카자흐스탄’에서 정미소 노동자로 1943년 사망했다. 한때 금강산 신계사로 피신하여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다. 홍범도 장군은 2021년 8월 유해로 조국 땅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그 이전의 원인은 홍범도 장군의 과거 독립운동 시절 공산주의 행적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육사 교육의 정체성 혼란을 막기 위해 흉상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념의 문제가 흉상 이전의 원인이다.

이념(이데올로기)은 어떤 집단에 의해 사실이나 진리로서 받아들여진 ‘통합된 정치적 신념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집단행위의 밑바탕에는 항상 이념이 작용한다. 그런데 이념은 ‘칼’과 같다.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무서운 흉기로 변하고, 주부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념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통치자는 이념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이념은 현란한 정치적 수사와 각종 신화의 옷을 입혀 대중을 설득하고 최면에 빠지게 만든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이 이념의 노예가 된다. 이로 인한 비극은 세계 정치사에 수없이 많다.

한국사회의 이념 논의는 일종의 사회병리학적이라 할 만큼 우리의 사고 지평을 위축시켜 왔다. 이러한 원인은 세계 냉전 구조에 한반도가 편입되면서, 이념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으로 6.25전쟁이라는 참혹한 동족 간의 전쟁을 치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정치 행위 판단의 기준과 척도로 삼게 했다. 한국사회의 이념적 논쟁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낡은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로를 헤매고 있다. 이를 어쩌랴.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고 임시정부의 기본이념이 된 ‘삼균주의(三均主義)’는 서구 이념으로 인한 분단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이념은 결코 ‘무상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장소와 시절 등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본과 대척점에 있었고 한국 독립을 지원한 레닌 공산당은 당시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일 것이다.

정치적 이념은 수많은 변수와 역동성을 가진 지니고 있어 하나의 용어로 대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용어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의 논쟁은 결국 이념의 함정에 빠진 한국 정치 지성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을 보면서, 붓다의 연기론과 중도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온다. 현대사회의 정치 이념들은 서구 정치사회의 투쟁의 산물이다. 이러한 투쟁의 산물인 이념들을 붓다 지혜의 틀에서 융해시켜야 할 것이다. 삶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념적 좌표는 바로 연기론에 바탕을 둔 ‘중도의 철학’이다.

중도는 어느 한 편에 기울지 않고 양자를 포용하며 한 단계 올라설 때 가능하다. 중도는 다양한 요소를 조화로운 전체에 융합함으로써 모든 요소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념을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연기적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리라. 한국불교의 책무가 산처럼 다가온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유수암 태산사

제주시 애월읍에는 ‘유수암(流水岩)’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유수암천(泉)’의 비석에는 “한라산 서북 나래 드리운 곳에 우뚝 솟은 절마루! 그 아래 십리에 봉소형(蜂巢形)을 이루었고 감천이 용출하니, 유수천(流水泉)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물 맑은 이 숲에 마을이 태동한 것은 삼별초가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삼별초의 김통정은 고려 원종 12년인 1271년 진도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게 패하자 남해현의 유존혁과 합류해 제주로 들어왔다. 제주에는 이문경의 삼별초가 고려의 김수와 고여림의 군사를 꺾고 승기를 잡은 상태였다. 제주에 입도한 삼별초는 항바드리에 성을 쌓고 1272년부터 도서 및 연안을 공격하며 전선 구축에 나섰다. 〈유수암리지〉에 의하면 이 시기에 삼별초군과 함께 제주에 들어왔던 어느 고승이 지금의 유수암 절동산 아래 맑은 샘을 발견하고 그 언덕 아래 사찰을 창건하여 불사를 시작한 것이 이 마을의 시초라고 한다.

〈북제주군의 문화유적〉에 의하면 이 유수암리 절동산 사찰은 ‘태산사(泰山寺)’로 명명하고 있다. 유수암천 남쪽의 고대사찰 추정지에서 ‘태산석(泰山石)’이라고 음각된 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태산사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절동산 하단에 흐르는 유수암천을 중심으로 동·서·남쪽에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절터의 경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는 다량의 유물 등이 산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이 유물들 중에서 도질토기나 청자백상감편 등으로 보아 사찰 창건연대는 12세기 이상으로 소급한다. 유수암천에서 유물산포지를 지나 동산으로 오르는 길에 설치된 계단은 마을 중심부의 절동산에 사찰 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구전에 의하면 1273년 여원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색이 짙어진 김통정은 홀로 남은 늙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이곳 유수암사지로 피신시키고, 한라산 붉은오름에서 최후의 혈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자결로서 항쟁을 끝냈다. 〈고성리지〉에 의하면 당시에 유수암사지의 감실로 피신한 그의 어머니는 “이곳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면 입구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곳은 말린 눈비아기풀의 불빛으로 7일 동안 밝혀졌다. 그러나 결국 그 마른 풀빛마저 꺼졌고 감실의 입구가 닫히면서 김통정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대로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

이런 사연으로 감실은 ‘종신당(終身堂)’이라 불리게 되었다. 비록 1987년 이 유수암사지 구역에서 발견된 비가 마모가 심하여 ‘태산석(山石)’인지, ‘태암(岩)’인지 알기가 어렵고, 작은 불상을 모시던 감실 종신당이 ‘태산감당’인지 ‘태암감당’인지도 정확하지 않으나 그곳에 서린 옛이야기는 아직도 선연한 물줄기처럼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수암리지〉에서는 감실에서 생애를 마친 여인은 삼별초가 왕으로 추대했던 승화후 온의 부인이었을 것이라고도 한다.

비 오는 날 유수천을 지나 태산사 계단을 올라 바라본 제주의 바다는 애련하다. 여·몽전쟁 당시 제주의 해안가에는 방어용 돌담이 세워졌다. 시작은 삼별초군을 막기 위해, 다음은 그들을 지킬 목적으로 돌담은 점점 길어져 제주를 둘러 ‘환해장성’이 되었다. 그 노동은 온전히 민초들의 몫이었다. 오늘도 그들의 피땀과 눈물은 곰보돌 무더기가 되어 헐리어진 채 거센 시류의 풍랑 앞에 서 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대학생 전법으로 미래불교 설계를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이 성료했다. 9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400여 사부대중이 결집해 대학생 전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천태종, 태고종 등 종단협 부회장 종단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전법위원들은 권역별로 6개 그룹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법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전법 이끌 핵심 인력 ‘키맨’을 양성이었다. 특히 동아리 회장단, 지도교수, 지도법사 양성을 주문했다. 대학의 지도교수가 있어야 동아리 창립이 가능하고, 동아리를 이끌 신실한 신심의 학생도 필요하다. 또한 불자 교수와 학생을 지도할 지도법사 역시 핵심적인 인력이다.

이를 위해 전법위원들은 학생회 회장단에 대한 집중 교육과 지원, 불자 교수 발굴, 지도법사 임기 및 지위 보장 방안들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생 전법에 대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도 쏟아졌다.

이 같은 전법위원들의 아이디어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진흥을 위해 스스로 탁발을 통한 전법 지원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이 수차례 강조한대로 대학생 전법은 한국불교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다. 불교는 대학생들에게 언덕이 되고 힘이 돼야 한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의 말처럼 불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불교는 아지트와 플랫폼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맞는 미래불교를 설계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변해야 한다. 변해야 산다.

‘나란다수행관’ 제3관 개관에 부쳐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머무는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처인 ‘나란다수행관’이 최근 제3관을 개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비구니스님들이 공부와 수업, 포교를 위해 서울에 머물러야 할 경우 변변한 거처가 없어 여관이나 고시원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비로자나국 제선원은 지난 2018년 2월 ‘나란다수행관’을 개관하고 서울에 머무는 비구니스님들에게 주석처를 제공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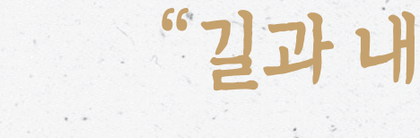
부침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자들의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래서 5년 동안 농인법회 ‘자비두손회’를 이끌고 있는 일원 스님,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범준 스님, 사찰음식을 전문화하고 발전시키는 성화 스님, 영어경전 번역과 동시통역 활동을 하는 민우 스님 등 30명의 스님들이 나란다수행관을 다녀갔다. 이를 보면 나란다수행관이 단순한 숙박이 아닌 도심 포교의 허브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번에 문을 연 제3관은 비구니스님들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조원희 불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서 마련돼 의미가 더욱 크다. 심지어 조원희 불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수행관 인테리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불교 승원의 시초인 죽림정사는 가란타 장자가 자기 소유의 숲을 헌상하고, 마가다 국왕 빔비사라가 건립한 도량이다. 기원정사는 수다타 장자가 기타 태자의 원림에 세운 정사(精舍)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전법포교하며 불교의 기반을 구축했다.

승가가 주석하며 수행하고 법을 펼칠 도량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란다수행관’은 승가의 수행처이자 도심 포교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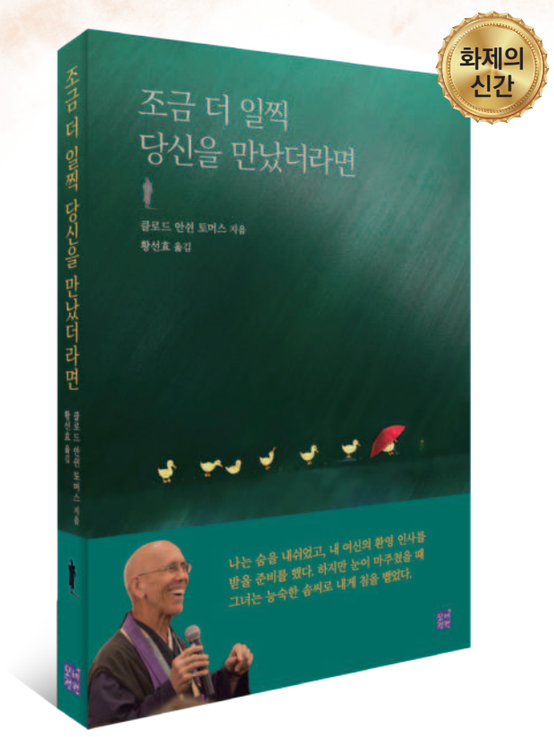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